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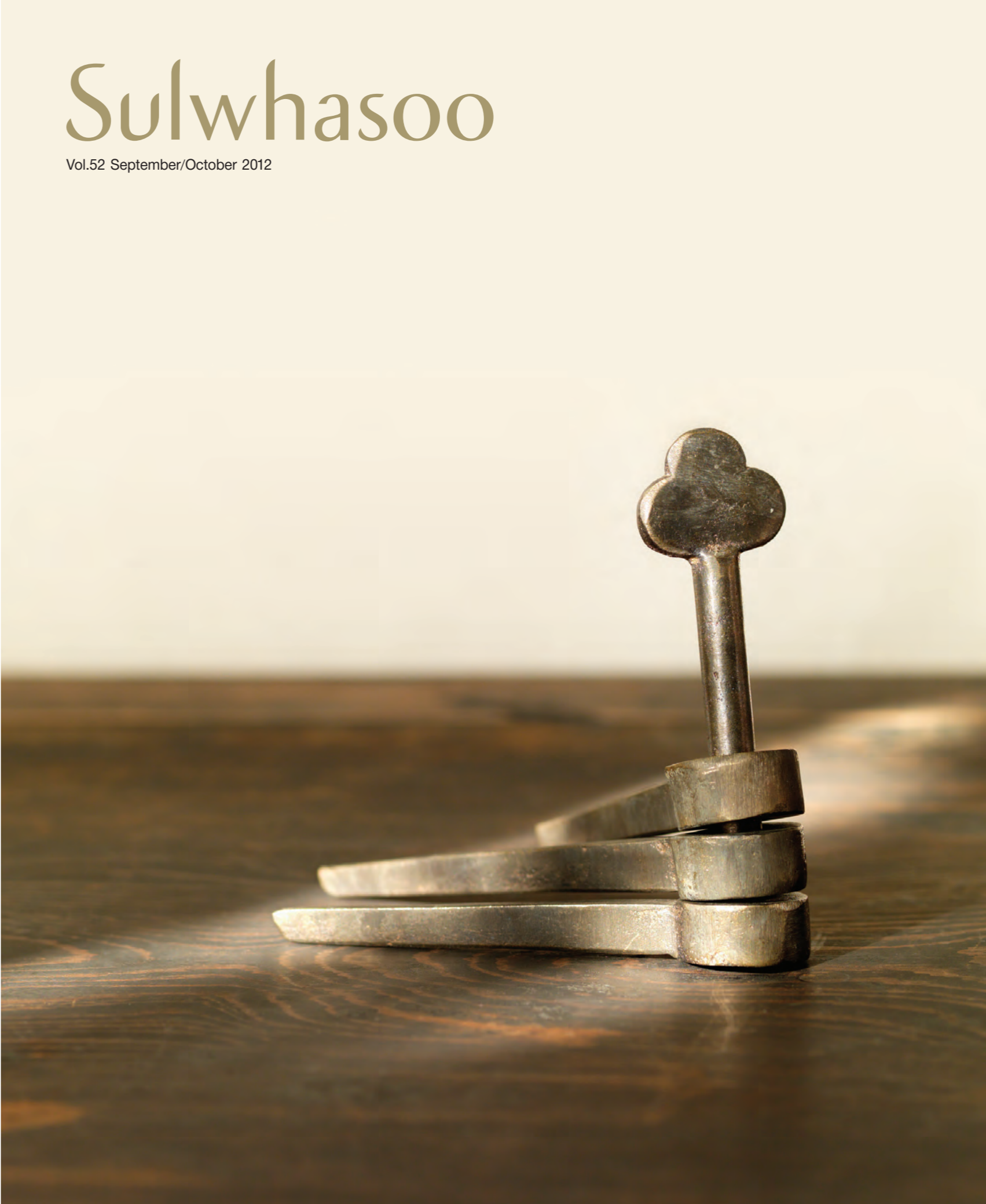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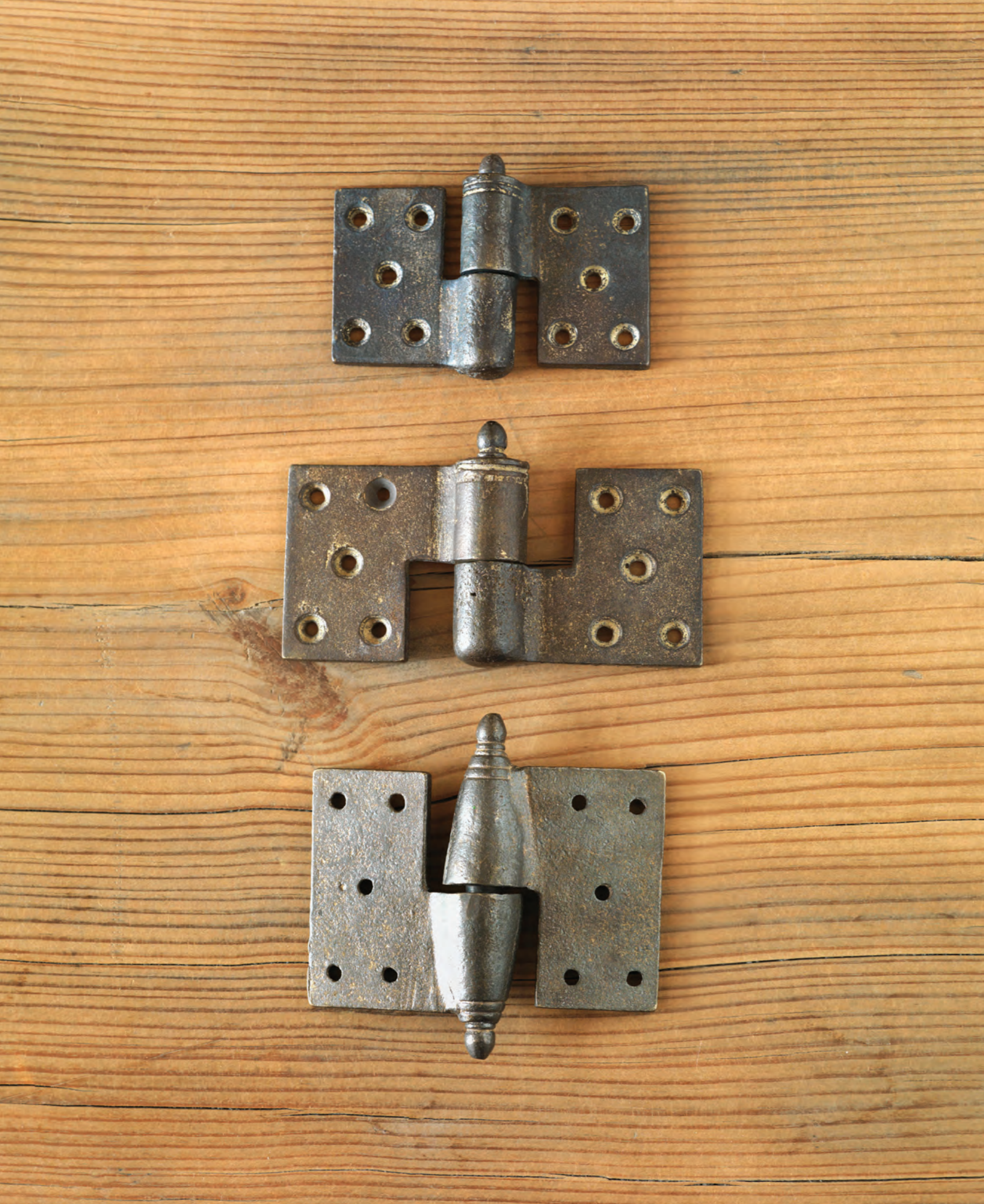
Vol.52 September/October 2012

# Sulwhasoo

Vol.52 September/October 2012







雪花秀

雪花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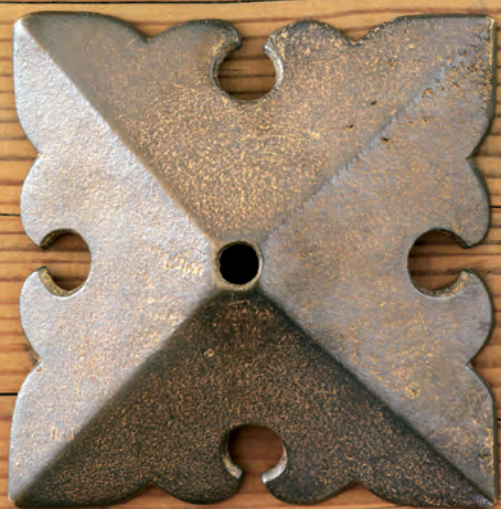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의 기본은  
속부터 단단히 여민 피부입니다  
설화수 여민에센스

피부 밀도가 느슨해지면 피부 빛, 피부 결, 피부선 모두 무너집니다.  
문제의 근본인 피부 밀도를 개선하여  
흐트러진 얼굴의 빛, 결, 선까지 한 번에 살려주는 여민에센스  
피부를 단단히 여미는 순간,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은 시작됩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담, 여민에센스

Sulwhasoo











## 노련한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다

Duseok craft produces hundreds and thousands of hinges from metal hinges for furniture to larger hinges for structures. Locks for your valuables and metal hinges for wooden furniture or structures are all part of duseok craft which is inseparable with woodcraft. Without the perfectly proportional and ornamental hinges, even the most exquisite piece of wooden furniture will not be valued as a complete piece. Traditional hinges can only be created by the hands of experienced and skillful masters who are often compared to master artists.

두석(豆錫)공예란 목제품을 비롯한 각종 가구에 덧대는 금속 장식에서부터 건축물에 쓰이는 수백 수천 가지의 장식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해주는 자물쇠, 목가구나 건조물에 붙여서 결합 부분을 보강해주는 금속 장식이 모두 두석공예의 분야인 것이다. 그렇기에 두석공예는 목공예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작품도 목가구의 비례와 장식적인 어울림을 고려한 경첩이 없다면 완성품으로서 가치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내공으로 다져진 장인의 노련한 손끝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전통 장식은 그래서 화룡점정을 찍는 화가의 손길에 비유되곤 한다. S

에디터 유수아 사진 구본창 작품 박문열





30

50

14

38

44

# Sulwhasoo

September/October 2012

##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약재를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은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에스려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                   |                                   |    |
|-------------------|-----------------------------------|----|
| 다시 보는 우리 유물       | 풍요로운 가을의 이면(異面), <빈풍칠월도첩(飈風七月圖帖)> | 06 |
| 집안 단장             | 어둠과 빛이 이뤄내는 미학                    | 08 |
| 몸단장               | 선이 그려낸 전통과 현대의 가교                 | 10 |
| 한국 문화 읽기          | 골무 Golmu                          | 12 |
| 피부 섬기기            |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담아내다                   | 14 |
|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 재즈 가수 웅산 - 음악은 아름다운 삶의 물결         | 18 |
| 격조 높은 삶           | 나무열전                              | 24 |
| 나무를 읽다            | 이 땅에서 역사와 함께 숨 쉬다, 우리 나무 열전       | 26 |
| 어우러지다             | 나무에 역사가 담겨 있네                     | 30 |
| 살펴보다              | 세계 역사와 신화 속 나무 이야기                | 36 |
| 세계 디자인 호텔         | 자연과의 재회, 레 카돌(Le Cadoles)         | 38 |
| 아트 클래스            | 주거 환경의 미래에 대한 참신한 제안, 그리고 희망      | 44 |
| 전통과 현대의 조우        | 한지의 아름다움                          | 50 |
| 설화문화전 장인을 만나다     | 세월의 빛장 폰 혼신의 여정                   | 60 |
| 휴(休)의 공간을 찾아서     | 저 고목 뿌리 하나 들어 정자 한 채 지었는가         | 66 |
| 명사들의 그릇장          | 정소영의 식기장, 대표 정소영-그녀의 그릇장          | 70 |
| 국악 기행             | 주린 배 나물로 채우고, 설운 마음 가락으로 채우고      | 72 |
| 설화도감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78 |
| 설화백서              | 빛과 결 그리고 선을 위한 다스림                | 82 |
| 설록다원              | 담백한 고요의 시간, 가을 찾자리                | 84 |
| 설화수 스파            | 고귀한 한방 성분으로 심신을 보양하다              | 86 |
| 문화 즐기기            |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유쾌한 일침, 뮤지컬 <사카고>      | 88 |
| 설화문화전             |                                   | 90 |
| 마음 단장             |                                   | 91 |
| 설화문화클래스           |                                   | 92 |
| 전통공예 배우기          |                                   | 93 |
| Insides Sulwhasoo |                                   | 94 |
| 독자 선물             |                                   | 96 |



The covers of <Sulwhasoo> magazines published in 2012 feature the artworks presented at the 2011 Sulwha Cultural Exhibition. The Sep/Oct issue presents the traditional hinges of Duseok Master Moon Yeol Park. His unwavering dedication to the traditional method - from the creation to finish of copper and zinc alloy - is the power that makes duseok an independent craft. A duseok master specializes in creating various metal hinges for wooden furniture.

2012년 설화수 매거진 표지는 2011년 설화문화전 작품들과 함께한다. 9/10월호에 소개되는 작품은 두석장 박문열의 전통 장식. 구리와 아연을 합금하는 단계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전통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는 그의 고집은 두석을 하나의 독립된 공예로 보기에 손색 없도록 만든 힘의 원천이다. 에디터 유수아 사진 구분창 작품 박문열

●발행인·서경배 ●편집인·권영소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81번지 ●제작·MC 전략팀 ●문의·최상구 02)709-5401  
●편집, 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인나랑, 문비송 디자인·박지영 마케팅·윤여찬 ●발행일·2012년 9월 1일(통권 제52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Et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태신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경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방운, <빈풍칠월도첩(豳風七月圖帖)> 중 제7면, 조선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종이에 묵은 색, 202x25.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원 이불근 기증.

## 풍요로운 가을의 이면(異面) <빈풍칠월도첩(豳風七月圖帖)>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면 바빠진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이때, 옷가지와 침구를 교체하는 소소한 일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추 말리기를 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아는 시골집에 마른 고추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가을철 농가는 도시보다 한층 더 바쁜 나날을 보낼 것이다. 농가의 가을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분주하다.

“음력 9월엔 채소밭을 곡식을 타작할 마당으로 만들고, 음력 10월이면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메기장, 차기장과 늦은 곡식, 이른 곡식, 벼와 삼과 콩, 보리 같은 거라네. 아 우리 농부들아, 우리 곡식 다 모아들였으니 고을로 들어가 집일 하세! 낮에는 띠풀 거두어들이고 밤에는 새끼 꼬아야, 빨리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잇는다. 내년이면 여러 곡식 씨 뿌려야 한다네.”

추수철에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읊은 이 시가 조선 후기 화가 기야 이방운이 그린 그림 위쪽에 적혀 있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시경(詩經)>에 수록된 <빈풍(豳風)>의 제1편인 ‘칠월(七月)’ 편의 제7장에 해당하는 시다. 시에서 말한 가을철 농가의 일들이 충실하게 그림으로 옮겨져 있다.

그림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집 한 채가 놓여 있다. 집 안에서 술상을 받아 앉아 편히 쉬면서 밖을 내다보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림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 집 마당의 앞쪽으로는 여름내 사용한 채소밭을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집 뒤 왼쪽으로는 농부들이 추수한 곡식들을 모아 난가리를 높이 쌓고 있다. 여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쪽에는 거두어들인 띠풀을 소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가져온 띠풀들은 마당에 내려놓여 있고, 집 왼쪽 나무 아래에서는 띠풀로 새끼를 꼬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곳에서 대각선으로 위쪽에서는 지붕 잇기가 한창이다. 이 일들은 시에 의하면 시기적 차이를 두고 행하는 일이지만 각각의 사건 간에 명확한 구획이 없이 화면 중앙의 집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배치했기 때문에 마치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배치 방식은 제한된 화면 안에 시간적 순서가 차이 나는 사건들을 묘사하는 동양의 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에서 말하고 있는 가을 농가의 일들

은 한 집안의 일이라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한 마을의 단위에서 바라보면 가을에는 집집마다 이러한 일들이 연이어 행해지기 때문에 화가는 이와 같이 장면을 배치했을 것이고, 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끓어질 듯 이어지는 이방운 특유의 부드러운 필선과 가을임을 알려주는 벗짚과 난가리, 띠풀의 노란색, 나뭇잎을 물들인 붉은색으로 인해 그림의 분위기는 화사하고 정감이 어린다. 또한 수확의 모습을 담고 있기에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그림이다. 그러나 그림 속 농부들은 싹틈이 없다. 추수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농사일을 마치면 집안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농사를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도 농부들은 일손 부족을 호소하면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을 한다.

<빈풍>은 중국 고대 왕조 주(周)나라에서 무왕의 뒤를 이은 주공(周公)이 섭정을 마치고 나이 어린 조카 성왕(成王)을 등극시킨 후,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자세를 훈계하기 위해 주나라 발상지인 빈(豳) 지역에서 유행하던 노래를 모은 것이다. 농업과 잠업, 자연을 노래하는 일종의 월령가(月令歌)인데, 조선 왕실에서는 이 시의 내용을 병풍 그림으로 그려서 왕과 왕자의 주위에 놓고 바라보면서 농사의 어려움을 늘 깨닫고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해진다. 어진 임금 세종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 풍속에 맞는 노래를 짓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서 대대손손 전할 수 있도록 집현전에 명했다. 위민(爲民)과 애민(愛民)이라는 세종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 농업 풍속을 반영한 <농가월령가>는 조선 말기가 되어서야 정약용의 아들 정학유에 의해 정리된 것을 보니 안타깝게도 세종의 명은 시행되지 않은 듯하다.

이방운은 화원 화가로 활동한 기록이 없기에 이 <빈풍칠월도첩>이 왕실 감계화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순 없지만, 그림이 지닌 교훈적인 기능과 함께 오늘날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시사철 손쉽게 먹거리를 구할 수 있기에 잊고 있었던,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업의 중요성과 고난을 일깨우는 의미를 지닌다. S

글 이수경(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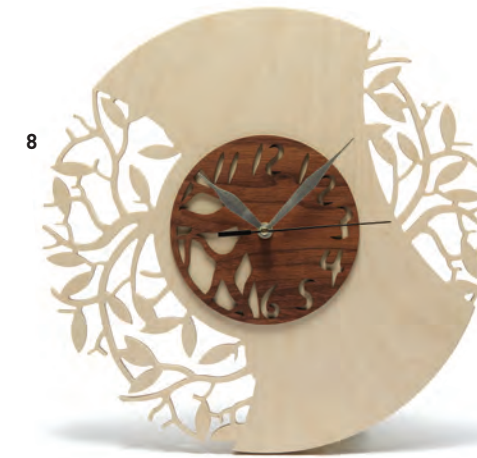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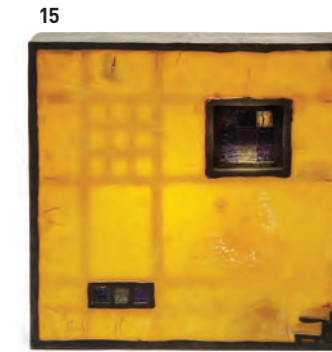


# 어둠과 빛이 이뤄내는 미학



불은 음식을 익히는 조리용과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용,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조명용의 세 가지로 발전했다. 그중 조명용 불을 지칭하는 빛은 길을 밝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길잡이의 상징이다. 모든 물체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를 드러내 아름다움을 보이고, 존재로서 빛의 가치를 말할 땐 반대적 개념인 어둠이 언급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호롱불을 켜놓고 책 읽던 아이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리고, 바느질하는 여인의 그림자가 방문 창호지에 비쳐 그려내던 한 폭의 그림은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며 그려진다. 침대 머리맡에서 책 읽는 아내를 비추는 스탠드형 조명,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가족을 따스하게 비추는 펜던트 조명, 다채로운 모양으로 멋진 집 안 공간을 운치 있게 바꿔주는 포인트 조명이 있기까지, 여기 가을밤을 따스하게 비출 멋스러운 조명들로 집 안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이영 도움 주신 곳 공평아트샵(02-3210-0071), 경신공방(02-763-1770), 더삼공심(02-844-3035), 디자인파일럿(02-516-5331), 메가룩스(02-2265-6911), 유제아시아(02-557-9286), 바다디자인(02-592-5342), 상삼마당(02-330-6221), 잠미방(02-2214-7595), 종이나무갤러리(02-766-3397)



1 현대적인 조명과 옛 시대의 조명이 호롱이 함께했다. 조명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호롱은 잠미방. 2 한지가 주는 따뜻한 느낌을 살린 전통적인 형태의 등과 고재 참죽나무로 만든 받침이 조화를 이룬 조명은 원영 김정순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3 선물 상자가 한지에 싸여 있는 모습을 모티브로 한 조명은 원영 김정순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4 각각 다른 색감의 빛이 비치는, 양중맞은 향아리 무늬가 새겨진 조명은 종이나무갤러리. 5 한지의 자연스러운 멋이 느껴지는 펜던트 조명은 메가룩스. 6 기린 무늬가 새겨진 도자 조명은 더삼공심. 7 여성의 속옷인 뷔스티에를 형상화한 조명은 디자인파일럿. 8 시계 뒷부분에 조명을 부착, 조명의 불빛이 벽면을 은은하게 비추는 포인트 장식이 되는 시계 조명은 상삼마당. 9 유리병을 것으로 재해석한 펜던트 조명은 바다디자인. 10 한지로 형태를 만든 후 천연 옷칠로 마감한 펜던트 조명은 경신공방. 11 아프리카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해 잠긴 아가 사자가 콘셉트인 위트 있는 조명은 디자인파일럿. 12 곡식을 헤아리는 데 쓰던 되로 만든, 고양이 눈이 독특한 조명 장식품은 흥현주 작품으로 유제아시아. 13 센서가 달려서 근처에 가면 저절로 불이 켜지는 똑똑한 조명은 상삼마당. 14 한지로 만들고 고운 꽃을 그려 넣은 스탠드형 조명은 이슬 작품으로 공평아트샵. 15 어느 시골의 한옥을 보는 듯한 조명은 경신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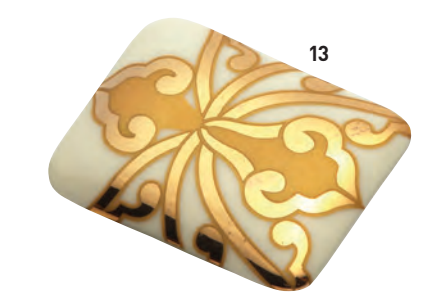


# 선이 그려낸 전통과 현대의 가교



크기와 높이, 면과 색, 비례와 대칭 등 선조들의 미학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요소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선일 것이다. 백제의 우아한 선과 신라의 강직한 선은 고려의 유려함으로 바뀌고, 조선에 이르러는 이 모든 것이 융화된 우아하고 세련된 선이 완성됐다. 우리 선조들은 사는 집에서부터 옷에 이르기까지 부드럽고 단순한, 그러나 고급스럽고 절제된 선의 미학을 보여줬다. 버선만 해도 그렇다. 발목과 앞부리의 완만한 두 곡선이 기와의 추녀 끝처럼 기막히게 마주쳐 살짝 위로 솟아오른 버선코의 섬세한 형태, 멋없이 불쑥 튀어나온 엄지발가락과는 상관없이 추상적 선을 그려내며 우리 몸에서 가장 못난 곳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역전시킨 것이다. 올가을 선의 옷, 한복을 재해석한 재킷, 버선코의 느낌을 살린 신발 등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영감의 선이 돋보이는 제품들로 몸단장을 해보는 건 어떨까. S

에디터 문비승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공평아트샵(02-3210-0071), 닌(070-4114-7775), 바림(070-8232-4362), 박혜리공방(02-542-4692), 삼바이림(070-8803-8284), 스토리(02-735-7101), 스튜디오블랭크(010-9551-2331), 아신(02-734-4900), 오브제핑크(010-2261-0850), 플랫폼파트먼트(070-4236-6362), 황혜경(010-2458-2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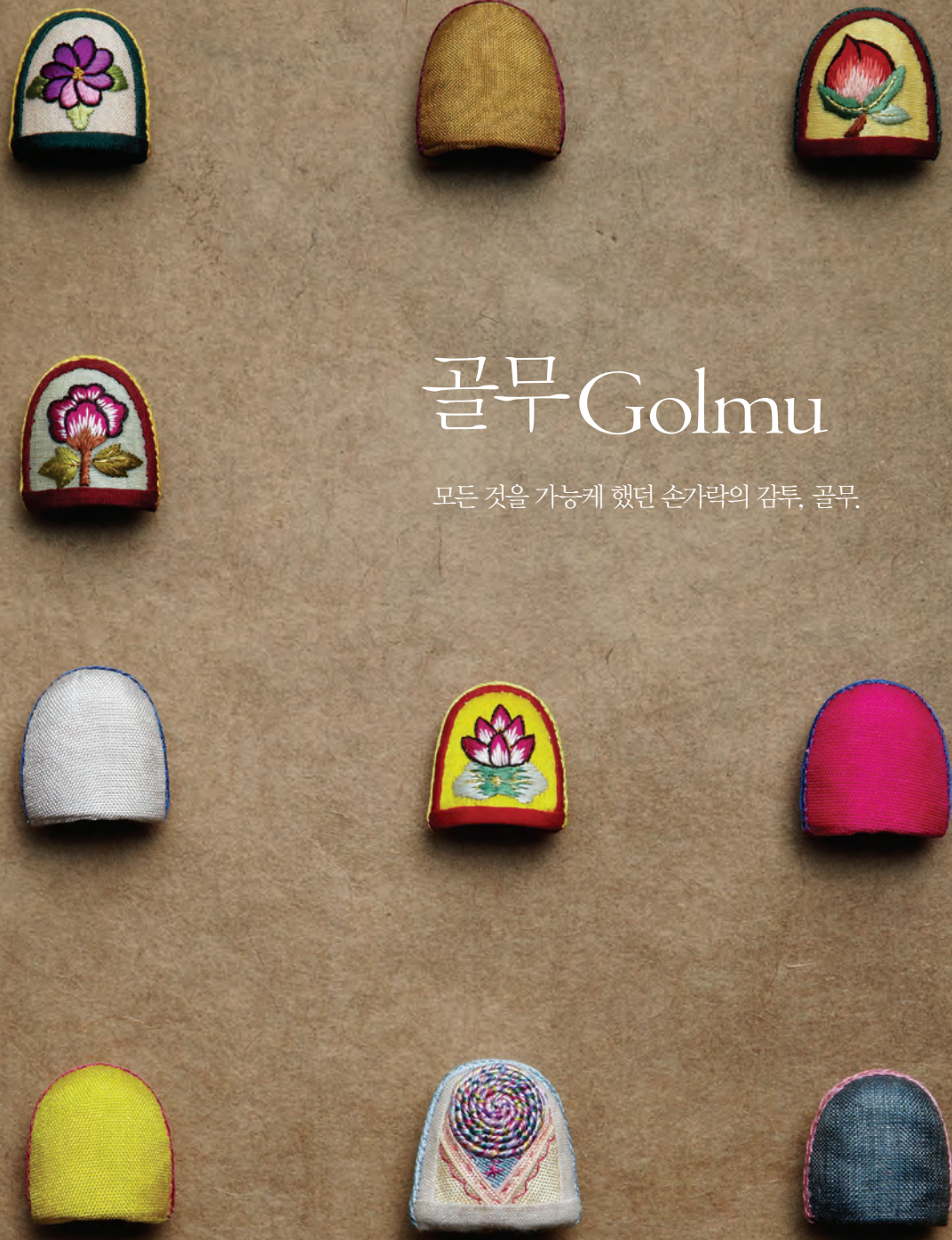
1 둥근 보름달 아래 유려한 선의 기와에 놓여 있는 악어가죽의 클러치 백. 여성의 사회성을 뜻하는 구두에 집안일을 상징하는 수저를 부착해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 하이힐은 황혜경. 2 조선 시대 여인이 신던 당혜를 모티프로 한 상큼한 색감의 오픈토 슈즈는 서경희. 이광섬 작품으로 플랫폼파트먼트. 3 유려한 선의 달항아리와 화병을 모티프로 만든 브로치는 엄귀순 작품으로 공평아트샵. 4 날렵한 버선코가 살아 있는 양중맞은 장신구는 아신. 5 전통적인 매듭이 그려낸 아름답고 상징적인 선과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머리 장식의 포인트가 될 머리띠는 삼바이림. 6 재료에서 오는 질감과 달항아리 장식에서 나오는 선, 끈이 주는 선의 맛이 살아 있는 링 타이(넥타이 대신 간편하게 연출)는 제이맥 작품으로 공평아트샵. 7 신발 끝의 자태와 무채색이 주는 현대적인 미감이 일품인 로퍼는 서경희. 이광섬 작품으로 플랫폼파트먼트. 8 나무가 가진 질감과 날씬한 곡선이 살아 있는 인마봉은 스튜디오블랭크. 9 옛 여인들이 항아리를 머리에 올린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가방은 스토리. 10 한복 차마의 끝자락에서 오는 리듬감을 그려낸 가방 장신구는 닌. 11 뽀뽀뽀뽀한 선이 재밌는 은 브로치는 엄귀순 작품으로 공평아트샵. 12 곡선이 살아 있는 한복의 저고리를 모티프로 해서 만든 짧은 재킷인 블레로는 박혜리 작품으로 박혜리공방. 13 고급스러운 색감과 볼륨감 있는 선으로 그려진 화려한 연꽃무늬 브로치는 주영은 작품으로 바림. 14 미끄러질 듯한 날렵한 선이 현대적 미감을 주는 지칼은 정재동 작품으로 공평아트샵. 15 버선의 변신! 안쪽에 앙달 원단을 넣어 포근해 평상시에도 신기 좋은 버선은 유숙자 작품으로 오브제핑크.





# 골무 Golmu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손가락의 감투, 골무.



직접 낚은 것을 입고 새 옷을 마련했던 규방의 옛 여인들에게 있어 침선 도구란 평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다. 침선 도구들을 의인화해 인간 세상을 풍자한 고전 수필이 전해 내려올 정도니 말이다. 자, 바늘, 가위, 실, 인두, 다리미의 여섯 각시가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상대를 깔보자 감투 할미로 불리는 골무가 나서서 이들을 꾸짖고, 주인에게 용서를 빈다.

그 주인이 감투 할미의 공을 높이 사는 장면으로 마치는 <규중칠우쟁론기>. 자신의 처지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보다 사리에 순응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이야기의 중심엔 '막아주고 돕는' 역할의 감투 할미, 골무가 있다.

바늘을 눌러 밀기 위해 둘째 손가락 끝마디에 끼우던 골무는 손끝이 바늘에 찔리는 것을 막아주며 손에 땀이 나서 미끄러울 때도 바늘이 잘 잡히도록 도와주었다. 수없이 바늘에 찔려가며 맡은 일을 다하는 골무는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다른 도구와 달리 제 몫을 다할수록 망가지는 희생정신을 지녔다.

이 모습은 꽃다운 시절을 지나 귀밑머리가 하얗게 되는 노년의 시간까지 온몸을 바쳐 집안을 돌보고 가꾸던 여인과 묘하게 닮았다. 그래서일까. 모든 것을 해지게 하고 넘처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시간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움의 시간, 슬픔의 시간,

그리고 기다림의 온갖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손가락에 끼운 여인의 골무 위에서는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도 하고 색실의 무늬들이 아롱지기도 한다. 작은 반달 같은 골무 위에 수놓은 매화, 연꽃, 석류, 나비, 새, 태극 등의 화려한 무늬는 자신과 닮은 골무에게 선물하는 여인의 애정 깃든 마음이 아닐까.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도음 주신곳 담연(02-546-6464)



For women who patched old clothes from their boudoirs and made new clothes by themselves, sewing tools were lifetime companions. In <Gyu-jungchirujaengrongi>, the six ladies – in the form of a ruler, needle, pair of scissors, thread, flat iron, and ironing board – competitively show off their skills, and ridicule one another,

while Golmu, also known as Madame Cap, reprimands them and asks the owner for forgiveness. At the center of this story is Golmu, or Madame Cap, who 'protects and helps' you. In fact, Golmu is designed to be worn at the tip of your index finger to protect your fingertip when pushing the needle, and to grab the needle securely even when your hands are sweaty and slippery. Golmu is pricked by the needle countless times in doing its job, and sacrifices itself to fulfill its duties, unlike other tools that are never broken or worn. Its sacrifice resembles the life of women who devoted themselves to raise and take care of their families through the good times until their hair turns gray. Could this be why. With Golmu, worn on the

finger to fight the time that makes everything wear out and ragged, and to overcome the time of longing, the time of sadness, and the time of waiting, little flowers would bloom and colorful patterns would dance around. The colorful patterns of embroidered Prunus mume flowers, butterflies, birds, and Taegeuk on the half-moon-shaped Golmu reflects the affection that women feel for Golmu, which resembles their lives.





#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담아내다

인삼의 뿌리에서부터 열매까지 인삼의 기운을 응축한 설화수 자음생크림  
그리고 인삼 종자유가 함유된 자음생 진본유는 인삼이라는 최고의 성분이  
지닌 효능을 내 피부 위에 그대로 전해줄 것이다.



공자는 “그림을 그리는 일은 깨끗한 비단을 준비한 뒤에 한다”고 했다. 이는 본바탕을 중시했던 현자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마도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화장법이라 할지라도 그 바탕이 탄탄하지 않다면 모래성을 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피부를 정성스럽게 다스려 본연의 힘을 되살아나게 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은 바로 이러한 본바탕에 가장 충실한 제품이다. 인삼 뿌리에서부터 열매까지 하늘과 땅의 기운을 응집한 인삼 성분이 피부 속부터 바깥쪽까지 골고루 케어해 자생 효과를 부여한다. 엄격한 공정을 통해 재배한 인삼 성분을 제품에 농축시키는 획기적인 신기술은 세월에 따른 피부 고민을 덜어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유연한 사용감은 피부에 오래 머물며 촉촉함을 전한다. 아침저녁으로 크림 단계에서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펴 발라주면 영양 성분이 피부 속에 충분히 흡수됨을 느낄 수 있다.

4년 근 인삼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인삼 열매인 진생베리와 더불어 노화에 대응하는 자생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인삼 뿌리 성분, 여기에 인삼 씨앗에서 추출한 인삼수를 제품의 베이스로 활용하고 연증법이라는 과학적인 기술을 토대로 만든 제품이 바로 설화수 자음생크림이다. 자음생크림과 더불어 인삼의 효능이 극대화된 자음생 진본유는 피부의 힘을 강화해주는 한방 에센스 오일이다. 특히 피부의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인삼 종자유가 함유되어 노화를 케어해준다. 인삼 종자유는 1년에 단 한 번만 채취할 수 있는 귀한 성분으로, 풍부한 사포닌 성분이 피부 방어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한다. 또한 동백유 성분은 윤기가 도는 맑은 안색으로 변화시켜준다. 참깨를 신선하게 짜낸 호마유 성분은 보습 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헐거워진 피부를 탄탄하게 케어해줌으로써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onfucius' statement saying, "I paint after preparing a clean piece of silk," tells you his wisdom that values the background. Similarly, refining beauty is probably not much different. In fact, even the most elaborate makeup technique does nothing better than a sand castle without a solid foundation.

Dedicated to invigorating the background,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Cream improves your skin deep down. The ginseng concentrate brings the energy of the sky and land from the roots to the berries of ginseng for an even skin regeneration effect from inside out. The latest innovative technology to concentrate ginseng extracts in the product through a strict cultivation process will wash away your concerns about aging. The cream nutrients stay on your skin for long-lasting suppleness. Simply apply over your skin every morning and evening and you will feel the nutrients being absorbed.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Cream is the optimal product that is complete with ginseng berries only grown on 4-year-old ginseng roots. The ginseng roots are known for their anti-aging regeneration capacity, with ginseng water as the base, and enhanced with the scientific technology of steaming.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contains ginseng seed oil particularly effective for secreting protein to form on your skin a defensive barrier for anti-aging. Ginseng seed oil is a rare ingredient that can only be extracted once a year and its rich saponin substance contributes to improving your skin's defense against inflammation. In addition, camellia oil controls hyper-oxidants generated by stress and leaves your skin clear and radiant.

왼쪽 피부에 탁월한 자생 효과를 부여해주는 자음생크림은 인삼의 열매인 진생베리, 땅의 기운이 응축된 인삼 뿌리, 그리고 인삼수가 담긴 한방 영양 크림이다.



피부 탄력력을 강화해 주름을 케어해주는 자음생  
진본유는 인삼 종자유를 통해 노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한방 에센스 오일이다.



오일 타입 제품의 경우 향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연의 향이 엄선되어 오일을 사용하는 동안 평온한 휴식의 공간으로 이끌림을 경험할 수 있는 자음생 진본유는 쑥과 솔 향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어주는 한국적인 향취를 더했다. 여기에 라벤더,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등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며, 제라늄과 일랑일랑은 우아한 여성미를, 그리고 오렌지와 레몬의 상큼함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한다. 아침저녁으로 크림을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자음생 진본유를 손바닥에 덜어 얼굴 전체를 손으로 가볍게 감싸면서 흡수시킨다. 계절이나 낮과 밤의 구분 없이 가까이 두고 수시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특별한 행사나 중요한 모임이 있다면, 무리한 에스테틱 대신 자음생 크림과 진본유를 이용한 셀프 에스테틱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수분과 탄력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수면팩을 통해 다음 날 아침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피부로 가꾸어보자. 저녁 스킨케어를 하는 동안, 자음생크림을 1~2회 정도 사용할 정도의 양을 손바닥에 덜고 자음생 진본유 두 방울을 섞어준다. 이마, 양볼, 턱의 네 군데에 나누어 바른 후 위아래로 부드럽게 발라준다. 손바닥을 이용해 얼굴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가볍게 두드려주면서 눈썹 시작점, 눈썹꼬리, 광대뼈, 양쪽 입가를 지압하듯이 눌러주면서 마사지하면 된다.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 즉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신이란 모습 속에 있으니, 모습이 같아야 정신을 제대로 전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던 조선 시대 화원 화가들의 논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봄 직하다. “터럭 한 올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초상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그 사람의 내면이 바로 얼굴을 통해 드러남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그래서 짙은 화장으로 꾸미는 대신 건강하고 맑은 안색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온화함이 바로 여인의 격조를 대변해준다. S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Fresh sesame seed oil is known for its hydrating effect which densifies the outermost layer of your skin to enhance its resilience.

For oil-based products, fragrance is a very important element.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applies carefully selected natural fragrance to guide you to the place of peaceful rest and adds the Korean style scents of mugwort and pine for composure. Lavender, rosemary, and eucalyptus give you mental stability, while geranium and ylang-ylang provide elegant femininity while the tanginess of orange and lemon invigorates your body and mi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is effective to use before putting on cream every morning and evening. Release a drop onto your palms and cover your face lightly with both hands for absorption. It is light enough to use in any season and at any time of the day.

If you have a special event or meeting, consider enjoying first the self-esthetics with Concentrated Ginseng Cream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Create your own sleeping pack for hydration and resilience for smoother and more radiant skin in the morning. During your skincare in the evening, release enough Concentrated Ginseng Cream for 1~2 uses and mix it with 2 drops of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Apply gently and evenly a small amount onto your forehead, cheeks, and chin in downward and upward strokes. Gently pat toward the center of face and pressure-massage the inner ends and outer ends of your eyebrows, cheekbones, and both ends of your lips.





재즈 가수 웅산  
음악은 아름다운 삶의 물결

그녀의 노래는 위안이자 행복이다. 때론 사람들의 슬픔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때론 달콤한 스윙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건넨다.  
재즈 선율과 어우러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생의 맛이 오롯이 담겨 있다.





가수로서 삶은 ‘용산’이라는 독특한 이름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꽃다운 나이 열여덟, 그녀는 충북 단양의 구인사에 들어가 2년 남짓 수행 생활을 했다. 큰 산이라는 뜻의 이름은 그때 스님이 지어준 법명이다. 여고생의 입산, 남들에겐 깜짝 놀랄 사건에 대해 그녀는 별다른 것 없는 삶의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불교를 연구하셔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제 자신을 수련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말이죠. 사찰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빨리 해서인지 바깥세상이 그다지 궁금하지 않았답니다.”

수행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잠깐의 낮잠. 어느 날처럼 선방에서 수행을 하다 깜빡 졸다가 스님의 죽비를 맞았을 때였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염불이 아니라 노래였다. 주변 사람들, 아니 그녀가 가장 놀랐다. 자신의 내면에 쌓여 있던 무엇인가가 경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진실을 깨달았으니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무작정 음악을 좋아해서 이런저런 활동에 쫓아다녔던 그녀였다. 삶의 반은 종교, 나머지 반은 음악이었던 셈이다.

“제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잊고 있던 음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노래로 소통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스님에게 ‘하산하겠습니다’라는 인사를 올렸죠.”

주저함 없이 산에 올랐고 다시 산을 내려왔다. 마음속의 지도는 오직 하나였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는 것. 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했고 화려한 록 음악에 흠뻑 빠졌다. 그러다 운명처럼 빌리 홀리데이의 ‘I’m a Fool Want to You’라는 노래를 접했다. 짜릿한 전율이 가슴을 울렸다. 재즈를 사랑하게 된 순간이었다.

“재즈 가수로서 첫 무대는 쟁쟁하신 선배님들과 함께했던 공연이었어요. 항상 팍 찬 사운드 속에서 음악을 해서인지 피아노와 보컬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일이 정말 낯설었죠. 마치 날것의 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해서 부끄러웠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즈 인생은 지금까지 무던히 이어져 16년째를 맞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향긋해지는 와인처럼 재즈는 뮤지션의 세월을 양분 삼아 성장하는 듯했다. 세월이 몸속에 켜켜이 쌓여갈수록 음악은 더 깊어지고 자연스러워졌다. 삶에 대한 깊은 시선은 재즈를 완성시키는 부속품과 같았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세월에는 그녀가 겪었던 음악적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다. 고백하자면 앨범을 내놓을 때마다 느꼈던 기쁨과 슬픔은, 끝나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혼돈에 빠뜨렸다.

“첫 번째 앨범은 한국과 일본에서 꽤나 큰 관심을 받았어요. 재즈 애송이가 뉴욕 한복판에 들어가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작업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화려한 시작인 동시에 가장 초라했던 시간이었죠.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가슴 깊이 깨달았으니까요.”

뮤지션으로서 갈증은 점점 심해졌다. 내면의 음악을 찾고 싶었고 자신만의 색깔을 내보이고 싶었다. 재즈 가수로는 드물게 곡을 썼던 이유도 자신만의 음악을 찾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제까지 세상에 내놓은 음반 6장은 그녀가 음악을 부둥켜안고 해답을 찾아간 결과물이다.







하지만 자신이 왜 음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사찰에서 수행을 하다 음악을 선택한 것처럼 그녀에게 재즈는 세상을 향한 일종의 수행이었다.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지진해일이 휩쓸었던 지역을 1년이 지난 뒤에 방문했어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밴드와 제가 사흘 동안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죠. 사실 그 아이들은 마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아이들이에요. 상처투성이인 아이들과 함께했던 음악 작업이었던 거죠. 그때 불렀던 곡이 'Tomorrow'였는데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자.' 제가 사람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죠.”

첫 만남은 어색했고 음악은 어우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상처투성이던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을 치유했고, 다시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응원했다. 음악은 그저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의 총합이 아니었다. 가슴속 상처에 대한 따뜻한 위로이자 내일을 위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음악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음에 진정 감사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도 즉흥적인 재즈를 꽤 많이 닮았다. 고정된 기준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꽃다운 나이에 홀연히 사찰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녀는 미래보다 현재의 시간에 집중한다. 자신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재즈 특유의 즉흥성이 그녀에게 감염된 것처럼.

“즉흥연주가 가장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떤 의도도 담겨서는 안 되죠. 뭔가 있어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왠지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인간 웅산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싶어요.”

올해부터는 긴장된 삶에 여유를 더 할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0미터 달리기를 하듯 음악 활동에 에너지를 쏟았다면 앞으로는 내면을 조금씩 비우기로 결심한 거다. 음악을 부둥켜안고 토하듯 작품을 내뱉기보다 뮤지션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중이다.

덧붙인다면 지금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음악으로 채웠다면 앞으로는 개인적인 삶에 집중할 생각이 다. 선택의 갈래는, 그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홀연히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별생각이 없었어요. 멋진 솔로로 살아가도 좋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적 욕심을 비우면서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무엇보다 가수 웅산은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여자 김은영(본명)은 무척 여성적이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아침 햇살이 찾아오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짝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틈만 나면 악기 연주를 즐긴다. 기타나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하모니카나 트럼펫을 불기도 한다. 삶에 경쾌한 리듬을 덧붙이듯, 오늘도 그녀는 음악을 즐기면서 인생이란 파도에 자신을 내맡긴다. 스윙에 발을 구르면 구를수록 인생이 더욱 달콤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헤어 노현정(라플로에 02-3447-4004) 메이크업 정지원(마7에 02-518-2326)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아틀포도밍게즈(02-540-4723), 오브제(02-3444-1730), 나무하나(02-512-4329), 지컷(02-3447-7701), 블랙뮤즈(02-508-6033)



# 나무 열전

나무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다. 왜냐하면 나무를 통해 문화가 흥하기도  
멸하기도 했으며, 문화의 중심에는 항상 나무가 있었다. 실생활에 있어서도 나무는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음식이나 약용식물로 인류에 도움을 주었으며,  
자연재해나 자연현상을 예견하는 것도 나무를 통해 가능했다. 나무에 대한 이해  
없이 역사를 논하는 것이 가능할까. 한 그루의 나무에 담긴 역사는 한 그루의 나무가  
살았던 시대를 아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이 땅에서 역사와 함께 숨 쉬다, 우리 나무 열전

단군신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단수부터 향교나 사찰에 서 있는 잘생긴 은행나무, 한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소나무까지, 한국인의 삶과 역사 속에는 늘 나무가 함께했다. 풍채 좋은 나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호신이었고, 선비들에게는 곁에 두고 의지하는 벗이었으며 국가의 길흉을 알려주고 질곡을 함께하는 역사의 증인이었다.

## 조선 선비의 지조와 절개, 소나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로 소나무가 꼽히게 된 것은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시대까지는 소나무 외의 목재를 더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워낙 질이 좋다 보니 조선 건국 초기에 의도적으로 많이 심기 시작했다. 새 나라의 궁궐과 관아 건물들을 건축하기 위해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게다가 유교가 국가의 중심 사상이 되면서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의연함과 곳곳함 덕분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 백설이 만জন하할 제 독야청청하리라”는 성삼문의 시조에서처럼 선비의 지조와 충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되었다.

역대 임금들은 소나무를 전국적으로 많이 심게 하고 보호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기 위해 엄격한 ‘금송령’을 내려 벌목을 규제했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가 소중한 나무라는 이미지를 인식시켰다. 세조가 벼슬을 내린 나무로 유명한 충북 보은의 ‘정어품송’ 이야기에는 ‘소나무조차도 알아보고 길을 터준 임금’이라는 뉘앙스와 더불어 ‘임금을 알아볼 정도로 상서로운 나무’라는 의미로도 내재되어 있다. 그만큼 존귀한 나무이니 마구잡이로 벌목해서는 안 된다는 ‘존송 사상’을 담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는 조선 사람들의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었다. 궁궐과 집을 짓는 목재와 불을 지피는 땃감은 물론이고, 솔잎을 넣어 송편을 찌고 송화가루로 만든 다식을 차에 곁들였으며, 흥년이 들어 굽주릴 때는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죽을 끓여 먹었고, 소나무로 관을 짜고 무덤가에 소나무를 심을 정도로 소나무가 안 쓰인 곳이 없었다.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왜구를 격침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배의 전면에 소나무를 쓴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일본의 배에는 비교적 무른 목재인 삼나무나 편백나무가 많이 쓰여 소나무로 된 조선의 배가 돌격하면 맥을 못 춘 것이다.

이처럼 소나무를 많이 쓰다 보니 산림 파괴 현상도 점점 심각해졌다. 조선 후기의 임금 정조는 백성들이 땃감으로 소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가지 나무마다 엽전을 매달아 대신 가져가게 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정도로 소나무 때문에 고심했다. 일제강점기가 되자 전국의 산은 헐벗다시피 되었고, 금강산에서 태백산맥을 따라 무성했던 최상품 목재인 ‘금강소나무’는 산업 철도가 놓이면서 더욱 극심하게 벌목되었다. 이때 베어낸 소나무들이 춘양역에서 집결되었다가 실려 나갔다 하여 금강소나무에는 ‘춘양목’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 천 년을 살아온 수호자,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소나무가 조선 시대 정신문화의 상징과도 같다면, 예로부터 선조들의 곁을 늘 든든히 지켜줬던 나무로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있다. 2억 만 년 전에 등장해 극동아시아에만 살아남은 후 한반도에 정착한 은행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만 스무 그루가 넘고 천 년 넘는 나무들도 여럿 될 정도로 오래 사는 나무다. 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전국 고목 1만여 그루 중 7,000그루가 넘는 나무가 바로 느티나무인데, 은행나무와 더불어 수명이 길고 모양새가 늙름해 마을 정자나무의 대명사로 꼽힌다.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있는 천연기념물 30호 은행나무는 추정 나이만 1,100살이 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 큰 나무로 꼽힌다.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 심은 지팡이에서 자라난 나무라는 전설과 더불어, 세종대왕으로부터는 지금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당상직첩이라는 벼슬을 하사받았으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이곳에 불을 질렀을 때 이 나무만은 타지 않았다는 일화까지, 신라에서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거쳐 21세기에 이르는 지난한 역사를 함께한 나무다.



1 17세기 이상의 노모를 모시는 13인의 재신들이 결성한 모임에서 주최한 경수연의 광경을 그린 것으로 행사장 밖 나무의 정경 묘사를 통해 당시 기옥 주위의 풍성한 나무를 엿볼 수 있다. <선묘조제재연경수연도>, 작자 미상으로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2 천라우수사 전일상이 오른손에 매를 올려놓고 정자에서 쉬는 모습으로 버드나무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어 휴식의 공간에 어울리는 나무였음을 알 수 있다. 김희경의 <석찬한유도>의 부분, 개인 소장.





1 달밤에 소나무 아래를 걷는다는 의미의 이 그림은 당시 유행했던 비바람 몰아치는 풍경을 휘어진 나뭇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좌의 <송하보월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육중한 형태의 뒷산과 잎이 바퀴살처럼 생긴 소나무 등이 어우러진 운치 있는 그림이다. 이홍효 <팔경도>에 수록된 '추경산수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 경재 정선이 살던 청운동은 푸른 단풍나무가 많아서 청풍계라 불리었다고 한다. 정선의 <청풍계>, 리움미술관 소장.



중국의 공자가 제자를 가르친 '행단'의 '행'은 본래 살구나무였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은행나무로 전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나무가 유교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다.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안의 명륜당 앞마당에 있는 500살 넘은 은행나무를 비롯해 퇴계 이황을 모시는 소수서원, 성리학의 선구자 정몽주를 모시는 경북 영천의 입고서원, '공자의 도가 동쪽에 왔다'고 일컬어진 한훤당 김굉필의 도동서원 등에는 어김없이 은행나무가 서 있다. 충남 아산의 맹사성 고택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 '쌍행수도' 600년 넘은 연륜과 기품을 자랑한다.

나뭇결이 아름답고 단단하며 잘 썩지 않아 최고급 목재로 꼽히는 느티나무는 옛 가구나 건축물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우리나라 목조건물 중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여겨지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둥에 쓰인 나무가 바로 느티나무다. 여름이면 무성하게 우거지는 위엄 있는 자태로 인해 사랑받았으나, 공해가 많은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해 도시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나무가 되었다.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못지않게 수령이 긴 향나무는 줄기에서 나는 독특한 향과 자태가 청정한 이미지를 지녀 궁궐과 사찰에 많이 심어지고 특히 학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중 순천 송광사의 천자암에 있는 쌍향수는 지눌 스님과 그 제자 담당 스님이 꽃은 지팡이에서 자랐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데, 두 그루의 향나무가 나란히 붙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독특한 모습으로 유명하다. 또 울릉도의 척박한 바위 절벽에서 살고 있는 향나무는 수령이 무려 2,0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름다운 문화재, 아픈 역사 속에 공존하다**

조선 초의 문인 강희안이 쓴 원에서 <양화소록>엔 천 년 묵은 노송에 귀한 정기가 생긴다고 하면서 군자는 소나무의 기상을 본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선비들은 유독 소나무 그림에 자신의 내면을 담아내곤 했는데,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귀양 갔을 때 그린 <세한도>는 허름한 집 한 채에 나무 네 그루를 그린 간단한 그림임에도 그 안에 담긴 회한과 원숙한 필치로 인해 최고의 명작으로 일컬어진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림의 나무 중 구부정한 노목은 소나무요, 줄기가 꽃꽂한 세 그루는 바닷가에서 자라 제주도에 많은 '곰솔'이라고 한다. 18세기 중반 이 인상이 그린 <설송도>도 소나무의 강고한 지조를 표현한 걸작이다. 나무는 역사적으로 중요했거나 큰 아픔을 남긴 사건들의 산증인이기도

했다. 조선 초 세조가 쿠데타로 왕위를 차지했을 때 강원도 영월로 쫓겨났다가 숙부에 의해 죽임을 당한 단종의 일화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등장한다. 그중 하나는 영월에 있는 천연기념물 76호인 천 살 넘은 은행나무요, 또 하나는 역시 영월에 있는 천연기념물 349호 소나무다. 단종은 이 은행나무의 열매로 자신의 운명을 점쳤고, 소나무에 걸터앉아 슬픔을 달랬다고 한다. 그 모습과 목소리를 보고(觀) 들었다(音) 하여 소나무는 '관음송'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왕위 다툼의 희생양이 된 어린 왕에 대한 백성들의 연민이 나무에 남겨진 것이다.

수려한 모습으로 인해 '선비목'이라 불리는 회화나무는 예로부터 궁궐과 선비의 고택 앞마당에 주로 심어졌는데,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에 있는 회화나무만은 우아함이 온데간데없고 으스스하게 비틀려 있다. 조선 후기 병인박해 때 1,00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교수대가 바로 이 나무였기 때문이다. 시인 나희덕은 '해미읍성에 가지거든'이라는 시에서 이 회화나무의 아픔을 토로하며 "수천의 비명이 크고 작은 용이로 박혀 있을 것"이라고 썼다. 역사 속 고통의 흔적까지 몸에 새긴 나무인 것이다. 소나무 중에서도 껍질이 흰 백송은 숨 막히는 정결한 자태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백송 중 최고령인 7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의 백송 역시 역사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증인이다. 옛사람들은 백송의 껍질이 희어질수록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여겨, 실제로 구한말의 흥선대원군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이 나무의 껍질 색깔을 보며 앞날을 점쳤다고 한다.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항상 제 곡조를 간직하고 버드나무는 백 번 잘려도 새 가지가 나온다네"라는 조선 중기 문신 신희의 시 구절처럼 선조들의 삶에는 온갖 나무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했다. 회초리와 곤장으로 쓰인 물푸레나무, 비단을 얻기 위해 한양과 궁궐 안에까지 많이 심은 뽕나무, 남부 지방의 아름다운 정자나무의 대명사인 푸조나무, 최고의 가야금과 거문고를 만들어낸 오동나무, 여름철 화려한 붉은 꽃을 백일 동안 피워내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이 아낀 배롱나무, 물가 나무터에서 바람에 흐느적거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정약용도 "늘어진 실가지 봄비에 젖으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구나"라는 시를 쓴 버드나무 등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 땅의 나무들이다. S

에디터 유수아 글 한성아 참고 문헌 <옛집의 향기, 나무>[고규홍, 들녘], <이 땅의 큰 나무>[고규홍, 놀와], <은행나무>[강판권, 문학동네], <미술관에 사는 나무들>[강판권, 효형출판], <한국의 명품 소나무>[전영우, 시사일보서], <우리 문화재 나무 답사기>[박성진, 왕의서재], <역사가 새겨진 나무 이야기>[박성진, 김영사], <우리 나무의 세계>[박성진, 김영사]





## 나무에 역사가 담겨 있네

한 그루의 나무에는 그 세월이 지나온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나무가 말해주는 한국사, 그리고 인생사.



### 매화와 선비문화

사군자 중 매화는 나무이다. 선비들이 매화를 숭상했던 것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과 향 때문이 아닐까. 조선 시대 이덕무는 초봄에 피었다가 지는 매화가 아쉬워 인조 매화 만드는 법을 <운회매십전(輪回梅十箋)>에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를 보고 연암 박지원은 직접 만든 인조 매화가 부족하면 환불해준다는 보증서까지 덧붙여 판매했다고도 한다. (왼쪽)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수백 년 된 매화 여러 그루가 함께 지라는 순천 선암사의 홍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선암사의 홍매는 대웅전 북동쪽 무우전 옆. 운수암으로 올라가는 돌담길을 따라 늘어서 은은한 매향을 전한다.

### 느티나무와 정자

자리가 어질면 그 안의 생명들도 슬기롭고 어질게 된다는 <논어>에 나오는 말처럼 마을에 자라는 나무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어진 품성은 서로 닮게 마련이다. 늠름한 모양새 덕분에 마을의 휴식 공간인 정자나무의 대명사로 느티나무가 손꼽힌다. 특히 여름이면 무성하게 우거지는 위엄 있는 자태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대변하는 듯하다.

효(孝)를 근간으로 하는 경북 봉화군 황전마을의 정자도암정의 느티나무는 앞으로 펼쳐진 길다란 연못과 잘 어우러져 여름이면 연못의 푸른 연잎이 만들어내는 인공 섬과 느티나무의 솟아오른 모양새가 여간 잘 어울리는 게 아니다.





### 회화나무와 학문

학자와 연관이 많아 학자수(學者樹) 혹은 선비나무라는 별칭이 있는 회화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달리 자유롭게 편이 있는 가지에서 사태부의 기상을 엿볼 수 있다. 학자들도 회화나무처럼 자유로운 기상을 통해 학문을 성취하고자 했는데, 벼슬이나 학문을 뽑내는 수단으로 회화나무 심기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원을 배경으로 하는 천 원짜리 지폐에 있는 무성한 나무가 바로 회화나무다.

조선왕조의 궁궐 중 유일하게 창덕궁에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을 들어서면 왼편의 금호문을 따라 일렬로 늘어선 회화나무 네 그루가 바로 그것이다. 왕이 관료를 만나는 장소인 궁궐의 외조(外朝) 중에서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의 자리에는 회화나무를 심어 특별성을 알리기도 했다.

### 백송(白松)의 품격

이름 그대로 껍질이 하얀 백송은 조선왕조 때 사신으로 왕래한 이들이 가져와서 심은 것이 대부분이다. 백송은 소나무 중에서도 희귀한 품종이라 특별한 대접을 받곤 했다. 백색을 숭상한 백의민족이었던 우리의 정서와 부합하는 백송은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긴 듯하다.

추사 김정희가 고조할아버지 묘소에 직접 심었다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남 예산 추사고택 옆에 자리한 백송. 김정희가 북경에 머물면서 백송의 숭방울을 가져와 심은 것으로, '추사가 수입한 백송'은 안타깝게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다.

### 향나무와 정신수양

예로부터 궁궐이나 사찰, 정원에 향나무를 심은 것은 향나무에서 풍기는 향이 사악한 기운을 없앤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종교의식이나 정신수양에 있어 어김없이 향을 피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특히 한국 건축사에 빛나는 부석사 무량수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건물을 지은 후 침향을 피워서이며, 단청 역시 침향목으로 만든 향을 피워서라고 한다. 선조들은 향나무가 몸을 불사르면서 향을 내듯 사람도 정신수양을 통해 어진 향기를 낼 수 있다고 믿었다.

단종의 폐위 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선비 유윤이 정원수로 심었다는 향나무. 이후 후학들이 향나무 옆에 세운 서원이 바로 송곡서원인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 쌍의 향나무가 모진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모습이다.





### 느티나무에 담긴 이품과 애환

보통 느티나무는 정자 옆에 심어져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나뭇결이 아름답고 단단하며 잘 썩지 않아 최고급 목재로 꼽히는 느티나무는 여름이면 무성하게 우거지는 위엄 있는 자태로 인해 사랑받았는데, 공해가 많은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해 도시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나무가 되었다.

조선 초기의 학자 김중직이 심었다는 함양 학사루의 느티나무, 함양군수로 재직 중 이단 김중직이 세상을 떠난 어린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심은 것 특히 나무뿌리가 꺾이에는 푸까운 책을 옆으로 세워서 나무를 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스스로 버림목을 만들어서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 소나무와 우리 민족

선조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나무는 집을 짓고, 땀감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관을 제작하는 등 평생을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하 80도 이하에서도 살 수 있다는 강인한 존재인 소나무는 눈 덮인 속에서도 푸른 위용을 자랑한다.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뜻을 지닌 소쇄원은 한국 정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은 소쇄원의 정수는 인공적인 타국의 정원과 다른 공간이다. 4,620제곱미터(약 1,400평)에 이르는 임천(林泉) 정원에는 15종의 나무가, 그중에서도 우리의 정서를 대변하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에디터 우수아 사진 이종근 참고 문헌 <우리 문화재 나무 탐사기>(박상진, 왕의 서재), <세상을 바꾼 나무>(강판권, 다룬), <나무열전>(강판권, 글형아리), <나무와 사람이야기>(고규홍, 서울신문)



## 세계 역사와 신화 속 나무 이야기

한국인들이 고목을 소중히 하는 것처럼 서양인들도 나무가 생명의 기원이며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우주를 떠받치는 '위그드라실'이라는 거대한 물푸레나무에서 인류의 조상인 남녀가 탄생했다고 하며, 게르만과 시베리아 민족들은 세계의 중심에 성스러운 우주목이 있다고 믿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거대한 나무를 토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고, 아프리카인들은 바오밥나무가 조상들의 영혼의 안식처라고 믿는다.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에 이르렀다든지, <구약성서> 창세기의 에덴동산 한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있다는 묘사처럼 종교적 설화에서도 나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타지 작품인 <반지의 제왕>에서 숲을 파괴한 악의 세력을 거대한 나무 종족 '엔트'가 응징하고,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에 푸른 피부의 외계 종족이 신성한 나무를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등 나무에 대한 신앙은 현대문학과 대중문화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

서양의 동화 속 요정과 마녀들이 지니고 다니는 요술 지팡이는 원래 땅속 광맥이나 수맥을 찾아내는 데 쓰인 개암나무 가지에서 유래되었다. 유럽의 게르만족과 켈트족은 이러한 나뭇가지에 마법이 깃들었다고 여겼다. 땅에 꽂은 지팡이에서 나무가 자라났다는 설화는 서양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 예로 이탈리아 베루치오의 수도원 안뜰에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1200년경 성 프란시스라는 수도사가 지팡이를 꽂아 자라났다고 하여, 우리나라 각지의 고목에서 전해지는 삼목 전설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거대하고 나이 많은 나무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 건 현대인도 마찬가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높이 83.8m의 제너럴 셔먼이라는 자이언트 세쿼이아 나무는 지구 상에서 가장 덩치 큰 나무로 지금도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의 살아 있는 나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 화이트 마운틴의 브리슬콘 소나무는 거의 5,000년을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어 불가사의한 신비로움을 더한다. 송일곤 감독의 영화 <시간의 숲>에는 일본 남부의 섬 야쿠시마에 있는 2,000살의 조몬 삼나무가 나오는데, 일본인들은 이 나무를 극진히 숭배해 수령을 7,000살로까지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조상들이 당산나무를 베면 화를 당한다고 믿었듯이 큰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죄악시한 것도 전 세계의 문화권에서 공통적이다. 영국의 인류학자 프레이저의 저서 <황금가지>에 의하면 고대 게르만족은 성스러운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자를 잔인하게 처벌했다고 한다. 그리스신화에서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참나무에 도끼질을 한 에릭직톤은 아무리 먹어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형벌을 받았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영웅 길가메시가 왕국의 삼나무 숲을 베어낸 후 수메르문명은 몰락하고 지금까지 황량한 사막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면서 태평양 연안의 광대한 삼림을 벌채했고, 전도사들은 이교도를 개종시킨다는 명목으로 토착민들이 숭배하던 나무들을 베었다. 지구의 숨결과 조상의 영혼이 깃든 숲과 나무를 파괴하는 일이 급기야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니, 인류가 받을 형벌은 더욱 가혹해질지 모른다. S

글 한성아 참고 문헌 <세계의 나무>(토머스 파켄엄, 넥서스), <역사가 새겨진 나무 이야기>(박상진, 김영사), <나무의 신화>(자크 브로스, 이학사)



韓

雪花秀



Sulwhasoo  
설화수 진설크림





## 자연과의 재회, 레 카돌(Le Cadoles)

미슐랭 3스타 셰프 미셸 트와그로와 그의 형제들이 세운 고향의 돌 오두막집 레 카돌은 평원 위 구름의 속도로 서서히 그 존재를 펼쳐 보인다.



레 카돌은 초원에 드러누운 암소들처럼 브리옹 평원에 이능하게 자리를 잡고 하루가 서서히 지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오두막집의 후면만 땅에 닿아 있고, 위로 솟아 있는 위치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관찰자의 느낌을 고양시킨다.





1



2

1 동근 천장은 대마 끈을 엮어 제작한 아티스트 피에르 베르나르(Pierre Bernard)의 작품으로 장식했다. 2 공간은 고의로 분리하지 않았다. 테라스에서 거실로, 주방 공간으로, 샤워부스로 이어진다. 3 오두막집의 철제 외관은 중간 높이까지 무광택 은색 페인트로 칠해졌다.

프랑스 남부의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부르고뉴(Bourgogne) 지방의 작은 계곡들 사이로 구릉들이 완만하게 잠기고, 키 큰 떡갈나무들 그늘 아래 희고 아름다운 암소들이 꿈쩍도 안 하고 누워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재빨리 지나쳐 버리는 삶의 아쉬운 순간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새롭게 펼쳐질 수 있을 시간들. 바빠 달리는 현대인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러한 덧없는 느낌을 마리(Marie)-피에르(Pierre)-미셸(Michel) 트와그로(Troisgros)는 언덕에 있는 자신들의 돌 오두막집의 존재 이유로 삼았다.

이 파라다이스에 가려면 시골인 이구에랑드(Iguerande)에서부터 작은 도로를 타거나, 좁은 철제 다리를 건너 고요한 부르고뉴 운하를 지나 양옆으로 소나무가 늘어선 한산한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두 번째 코스는 더욱 야생적이어서 수달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된다. 하늘은 드넓어지고 풀은 짧아진,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진 언덕을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예전에는 양 떼가 피난처로 삼았고 지금은 맛있는 식사가 제공되는 그랑 쿠베르(Grand Couvert). 은밀함, 아름다움, 침묵, 진정한 럭셔리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곳에서는 미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고급스러운 미셸 트와그로 레스토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저녁 식사를 하고 멋진 맥주 바에서 기분 좋게 취해도 좋고, 근처 어디에서든 집



3





1, 3, 4, 5 자연광이 어우러진 다락방 같은 내부 공간들. 2 비트라(Vitra) 에디션의 쿠션 의자와 낮은 의자들, 사브즈(Sabz)의 라운드 테이블, 노구치(Noguchi) 램프가 어우러진 공간. 유리처럼 투명한 만과 직각을 이루는 문은 앞에 펼쳐진 풍경을 가리지 않는다. 6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오래된 항아리엔 허브 향이 가득하다.



에 있는 듯 편안하게 머물러도 좋다. 그 옆엔 비탈에 기댄 채 풍경을 바라보는 레 카돌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초원 한가운데 위에 놓인 멋진 건물 세 채. 시선이 멀리 닿도록 약간 높이 세워진 건물들. 언뜻 보아 고급스럽지 않은 풍경 위에 놓인 건물들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풍경이 변하는 걸 보니까요. 나뭇가지를 움직이는 미풍, 지나가는 구름...” 유명한 건축가로서는 너무 소소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버려진 농가, 가축들을 키우던 넓은 대지, 늪, 울타리를 둘러친 목장이 있는 농촌의 이 황무지 앞에서 건축가는 트와그로 형제가 포착한 것들, 즉 침묵과 언덕의 조화, 드넓은 하늘을 자신도 느꼈다. 프로젝트는 이러한 환경을 되살리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카돌(Cadole)은 리용 사투리에서 나온 어휘로, 부르그뉴 남부 포도 재배지의 건조한 돌로 지어진 옛 낱식 오두막집을 가리킨다. 레 카돌은 굴처럼, 땅굴처럼 모서리가 없고 앞쪽에만 문이 있다. “이 새로운 오두막집들은 잔가지들로 엮어진 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추형 형태가 되었죠.” 마리와 피에르의 말이다.

“손님 접대에 대해 말하기 전에, 트와그로 형제는 사물의 의미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손님을 맞는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트와그로 형제에게 손님 접대는 배개에 초콜릿을 놓아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는 바로 자연과의 재회. 산장처럼 아늑한 내부에는 굴처럼 짜인 알코브(방에서 속 들어간 빈 공간, 주로 침실 공간으로 활용)와 평원을 향해 나 있는 발코니에 마련된 거실이 있다. 그리고 하늘을 보기 위해 드러누워야 하는 침대도. 건축가에 따르면 레 카돌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랑의 침실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오페라극장이다. 우리를 둘러싼 것들을 응시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 멈춰 오페라극장을 쓰고 세상을 주시한다는 것. 우리는 단지 살아 있는 세상을 이루는 요소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고요히 깨닫게 되는 찰나의 순간. 그곳에선 차가 다닐 수 없는 한적한 오솔길을 달빛 받으며 오르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혹은 마리, 피에르, 미셸, 패트릭의 마법 책자에 적혀 있듯이 숙소로 삼은 돌 오두막집에서 “날이 서서히 저무는 걸 지켜보아도, 자연과 더불어 쉬어도” 좋다. S

에디터 문비승 글 노엘 비트네(Noëlle Bittner) 사진 귀욤 드 로비에(Guillaume de Laubier)





# 주거 환경의 미래에 대한 참신한 제안, 그리고 희망

평창동 토탈미술관에서 10월 7일까지 열리는 <버티컬 빌리지(The Vertical Village)> 전시장에 들어서면 신선한 충격과 '몰음표'가 교차하는 묘한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알록달록한 총천연색 블록들이 가득한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단조롭고 규격화된 아파트 문화에 대한 대안인 '버티컬 빌리지'를 실제 크기의 15분의 1로 제작한 축소 모형.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알록달록한 색상과 형태로 표현했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이 전시장은, 평창동 토탈미술관 2층 201호에서 10월 7일까지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문의: 033-250-1111



### 한국인의 아파트,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소설가 최인호가 1971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타인의 방'의 배경은 아파트다. 이 소설은 평범한 직장인인 주인공이 출장에서 돌아와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올라서 자기 방까지" 올라가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 그는 자기 집의 초인종을 누르지만 아내는 부재중이고 집에는 아무도 없다. 그가 환깁에 현관문을 쾡쾡 두드리자 이웃집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며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이 아파트에 거의 삼 년 동안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소."

무려 40여 년 전의 소설이지만,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웃의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풍경은 지금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조차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이 소설은 산업화가 가속화되던 1960~70년대 한국인의 소외감과 단절 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인 1982년에 가수 윤수일이 발표한 '아파트'라는 가요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곤 한다.

이처럼 문학 작품과 대중문화에 아파트가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기저기 들어서고 아파트가 도시 중산층의 주거 문화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아파트는 '아파트먼트 하우스(Apartment House)'를 줄인 말로서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본래 서양식 표현으로는 영국 용어인 플랫(Flat)이 쓰인다.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형태의 집합 건물이 처음 지어진 것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였지만 일본인을 위해 일본인이 지은 것이었다. 그러다 1960년대 마포 등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반포 등지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그야말로 아파트가 대세인 나라가 되었다. 전시장에서 화면으로 제공하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서울의 도시 풍경은 아파트, 빌딩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여기저기 전통 마을들이 자리해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스위스 치즈 모습과 유사"한데, 현재 130만 유닛에 이르는 서울의 아파트들을 줄을 세운다면 지구 둘레의 절반을 넘는 길이가 될 정도라고 한다.

### 거주자의 개성과 자유가 살아나는 집

올 초 대만에 이어 아시아 순회전으로 열리고 있는 <버티컬 빌리지>전은, 오늘날 아파트라는 공간이 '기형적으로 팽창'되어 "그 지역의 특



1 전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버티컬 빌리지'의 모형. 블록이 여기저기 쌓여 자라나는 것은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2 버티컬 빌리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규칙과 변수들을 실험해보고 있다. 3 버티컬 빌리지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디오 자료를 통해 들어볼 수 있다. 4 재미있는 놀이터 같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전시장. 어린이 관객들도 즐거워한다.





수한 커뮤니티를 파괴시키며 개인의 개성을 박탈"하는 주거 양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참신한 미래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서 출발한 전시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제한적인 조건 안에서 단조롭게 수직적으로 팽창해나가는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그 수직적 형태는 유지하되 거주자 각각의 개성이 드러나는 건축물"을 지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다. 전시장 초입과 여기저기에서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블록 조형물들이 바로 이 대안적 건축물을 축소해서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아래위로 똑같은 구조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지금의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거주자의 정체성, 자유, 다양성'을 살리고 '유기적으로 자라나는 메커니즘'의 집합 건물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제시한 이들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건축 디자인 그룹인 'MVRDV', 그리고 델프트 공대의 싱크탱크 연구소 'The Why Factory'다. 네덜란드 건축가 중에는 렘 쿨하스가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렘 쿨하스의 후배 세대라고 보면 된다. 이 건축가들이 암스테르담에 지은 보조코(WoZoCo)라는 아파트는 서랍 같은 블록들이 여기저기 돌출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건물로 '2010년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불가사의 건축물'로 소개된 바 있다. 이들이 3년간의 연구 끝에 "폐쇄적이고 균질적인 아파트형 주거 구조에 대한 해법으로 수직적인 매트릭스를 기본으로 거주자의 개성이 담긴 블록 구조를 덧붙인 구조물"을 창안한 것이 바로 '버티컬 빌리지'의 개념이다. 전시에는 각 분야의 리서치 과정과 미디어가 소개되고, 아시아 지역의 도시 아파트에 대한 현실이 제시되며, 노트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집과 마을을 직접 짓는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서울뿐 아니라 베이징,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타이페이, 도쿄 등 아시아의 대도시마다 비슷비슷한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은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 아파트의 삶을 담다

모형과 미디어가 주를 이루는 전시 작품 중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정연두의 <상록타워 2001>이라는 사진 작품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는 최근 세계적인 미술 잡지 <아트 앤 옥션>이 선정한 '미래 소장 가치가 있는 50인의 작가'에 한국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뽑혀 더욱 화제가 된 젊은 작가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백남준 이후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그의 영상

1 대형 스크린을 통해 아시아 대도시의 아파트에 대한 현실,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의 작품 <상록타워>를 관람할 수 있다. 정연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34가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2 아파트는 각 가구의 형태가 천편일률적이지만 '버티컬 빌리지의 집들은 저마다 개성 있는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 3, 4 버티컬 빌리지는 고밀도의 주거 환경이 되 위생적이고 사회적이며 이웃과 상호 소통하는 도시 마을을 지향한다.

작품이 영구 소장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정연두의 작품은 200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34가구의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닭장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지닌 아파트에 중산층 도시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 가족만의 개성이 묻어나고 사람 냄새가 흠씬 풍긴다. 아무리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건물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은 사람이며, 수많은 사람의 개성과 자유가 진정한 집을 완성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버티컬 빌리지에서의 일상>이라는 영상물을 통해 네덜란드 건축가들이 꿈꾸는 '아파트의 미래'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다. 수직으로 집들이 올라간 고층 건물이 되, 집들의 형태가 개인 주택처럼 각각 다르고 전체적으로 채광이 탁월하며 이웃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도시의 풍경이 마치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이러한 건물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에 대해 상상해보고 꿈꿔보는 일만큼은 건축가가 아닌 누구에게라도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한성아 사진 임태준







## 한지의 아름다움

이제 한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키워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한 종이의 차원을 넘어 가구, 한복, 그리고 조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 한지를 입다

보관만 잘하면 천 년 이상을 삭지 않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한지. 한지로 만든 실은 한복을 만드는 데도 제격이다. 한 번 사용한 것을 재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질긴 한지사 한복은 한지의 특성상 마치 삼베와 같은 은은함이 있어 한 올 한 올이 살아 있는 듯한 정감과 깊이를 더한다.

한지사로 만든 주름치마는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한복을 한지로 재해석한 작품이며, 저고리는 한지사로 제작한 조선 시대 전통 혼례복이다. 치마와 저고리 모두 전통한지공예가 심화숙 작품.





### 한지로 집안을 꾸미다

약간 누르스름한 빛이 나고 결이 또렷한 한지는 습기를 잘 빨아들이고 방한 효과가 뛰어나 쉽게 삭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새 종이를 쓰지 않고 버리기 직전의 종이를 생활용품으로 변모시켜 사용했던 선조들의 덕목은 현대인들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전통 한지인 '구김지'를 수십 장씩 겹쳐서 패브릭 대신 사용한 한지 의자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접착제를 발라 제작한 친환경 소재의 가구다. 한지 의자는 원다면 작품. 왼쪽 서양에서 유행하는 니트 길기도, 왕골 소재 길기도 한 오브제들은 알고 보면 한지로 제작한 지승공예 작품이다. 왼쪽부터 위의 세 작품은 지승을 두 겹으로 엮어 문양을 넣어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투각 기법을 사용해 정교함을 살렸다. 모두 흥연하 작품으로 고운한지공예회, 표주박 같은 지승 표현형, 옷칠을 함으로써 실용적인 지승 요강 등 현대적인 미감의 선이 돋보이는 아래 의 세 작품은 모두 지승공예가 조은실 작품.





### 한지로 밝히다

우리 선조들이 문(門)종이로 사용했던 한지는 채광이 잘되어 현대에는 조명을 제작하는 데 즐겨 사용된다. 한지라는 소재는 전통적이지만 현대적인 미감에도 잘 어울려 그 자체로 혹은 지승공예라는 전통공예 방식으로 세련됨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무인들이 활을 넣고 다니던 활통을 육각형으로 제작한 지승공예 육각 활통은 지승공예가 조은실 작품. **오른쪽** 위의 나뭇잎 모티프 조명은 이보경 작품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왼쪽의 조족등은 조선 시대에 사용했던 휴대용 등기구로 닥종이를 붙여 제작한 것. 전통한 지공예가 심화숙 작품. 가운데 철제 프레임의 한지 조명과 오른쪽의 조개 모양의 조명 모두 원영 김정순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 한지로 만들다

아흔아홉 번의 손질로 태어난 한지는 오롯이 정성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에게는 매우 귀한 것이어서 상류 계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한지로 제작한 소품들은 특권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나무나 고리 등으로 뼈대를 만들어 안팎으로 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드는 지장공예로 제작된 흥연화의 경대는 고운한지공예회. 왼쪽 한지를 여러 겹 덧발라 만든 틀에 다양한 색지로 옷을 입힌 후 여러 가지 문양을 오려 붙이는 전자공예로 제작된 관복함, 망간집, 탕간집, 갓집. 한국공예가협회 황현진 작품.





### 한지로 기원하다

부귀의 의미와 화목을 상징하는 꽃인 모란은 자수나 병풍, 민화 등 다양한 그림 속에서 등장하는 부귀의 상징이다. 색을 입힌 한지로 제작한 지화에서 오묘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만수대택에서 사용하는 지화의 종류인 모란꽃을 달항아리에 꽂으니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다. 모두 황해도 만신 이해경 작품.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02-733-0941), 황한진(010-4873-7472), 종이나무갤러리(02-766-3397), 심화숙(02-394-6533), 고운한지공예회(031-707-3843), 조은실(010-2556-5003), 원다연(010-3211-3359), 황해도 만신 이해경(02-798-9788)







## 세월의 빛장품 혼신의 여정

### 두석장 박문열

때로는 구멍을 내고, 아니면 두 개의 쇠조각을 덧대 무언가를 만든다. 신기하게도 그의 손길이 닿으면 쓸모없던 쇠붙이는 생명을 얻는다. 어쩌면 그가 만들어내는 경첩이나 자물쇠는 가구에 붙이는 장식이 아닌지 모른다. 한 사람의 뜨거웠던 일생이 남긴 선명한 발자국은 아닐는지.



“장인에게는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고집과 손재주, 그리고 인내가 그가 말하는 세 가지 덕목이다.

손을 놀려 무언가를 만들며 시간의 지문을 지우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 만나자고 하면 일단 뜨거운 반응부터 보인다는 거다.

“우리 같은 사람 만나서 뭣하게, 사람들 들을 만한 솔깃한 이야기가 어디 있나.”

대개 이런 식이다. 그네들이 번잡한 만남을 회피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처사일지 모른다. 그들이 이런저런 만남을 즐겼다면, 어찌 장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대니얼 레비틴의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다. 아무리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루 3시간씩 10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해야 비로소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통공예의 맥을 잇고 있는 장인들은 몇 배의 공을 들여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사람 만나는 시간조차 아까운 거다.

일면식이 있던 두석장(豆錫匠, 중요무형문화재 제64호) 박문열 씨에게 연락을 하자, 그 역시 떠름한 말투로 “또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느냐”며 내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양반들의 태도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일단 마뜩잖아 하지만 정작 대면하고 나면 살갑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잦지 않아 어색해질 뿐이지, 속내는 판판인 거다. 그는 올봄,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이사를 했다. 작업장 겸 거처를 서울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위치상으로는 중앙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허름하기 짝이 없던 건물 대신 그는 자신이 꿈꾸던 새집을 지어 뿌리를 내렸으니 말이다.

그가 자신의 번듯한 작업장을 갖기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좌절이 필요했다. 그가 첫 조각을 처음 손에 잡은 것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뒤였다. 너나없이 가난했던 시절, 그라고 용빼는 재주가 없었던지라, “입에 풀칠하려고” 남영동 주물공장에 작은 몸을 의지해야 했다. 지금도 단구인 그는 어려서는 더 작았다. 쇠를 녹이는 공장, 여름이고 겨울이고 불뚱이 이리저리 튀는 그곳에서 소년은 하루도 성할 날이 없는 몸뚱이 하나로 버텨내며 청년이 되어갔다.

누구보다 호기심 많고 손재주가 뛰어났던 소년은 고 윤희복 씨를 만나 장석과의 인연을 맺었다. 인사동 표구사 부엌 한쪽에 앉아 더부살이하듯 시작한 장석 일이 그의 일생을 지배하리라곤 그 역시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일을 천직으로 삼게 된 것일까.

“지금이야 귀한 물건이 되었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의 전통 자물쇠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 집 저 집에서 흘러나오는 희한하게 생긴 장석들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 빼어난 조선의 장석을 전수해줄 사람은 곁에 없었다. 이미 명맥이 끊겼던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야 물림이 되었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줄 이가 없었던 셈이다. 스승을 대신한 건 그의 호기심과 독심이였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독립군’으로 살아야 했다. 고건축물이 많은 사찰을 돌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던 그는 그 세월 동안 내공을 쌓아갔다. 그리고 그런 각고의 노력은 지난 2000년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 단양 구인사의 조사전 공사를 하고 있던 그에게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던 것. 자신이 인간문화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산 신문의 기사를 통해 비로소 두석장이 세상의 인정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에서 틀려서 그렇지 당시 그의 감회가 어떠했겠는가.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모진 세월을 헤쳐온 보상을 받았으니, 통곡까지는 몰라도 눈물을 한 바가지는 흘리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그때까지 독립된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던 두석장에 대한 사회적 공인이었으니 그 감회는 더







육 클 수밖에 없었다. 10여 년 동안 줄곧 전승공예대전에 출품했지만 그의 작품은 고작 입선에 머물러야 했다. 두석은 가구에 쓰이는 부속품 정도로만 취급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몰이해가 그에게 의욕을 불러일으켰고,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처지였던 '조선의 자물쇠'를 부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니 세상사 참 모를 일이다.

“꼭 누가 알아줘야 좋은 건 아니지만 부아가 치밀잖아요. 내 눈에 금쪽같은데 남들은 쇠조각으로만 대하니 말이야. 붓집 하나 달랑 메고 전국을 떠돌았어요.”

그의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두석을 우리의 전통공예로 인정받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가득했다. 절박한 그의 마음이 통한 것일까. 그는 문득 어릴 적 인사동 표구사 부엌에서 맞닥뜨렸던 조선의 자물쇠를 떠올렸다.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만나기 어려운 그 자물쇠를 찾아서 복원할 수 있다면 자신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마음을 먹었다고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진 않는다. 인연이 닿아야 하는 법이다. 절실했던 그에게는 인연의 운까지 따랐다. 지금은 없어진 진주의 태정민속박물관에 조선의 7단 비밀 자물쇠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지난 1991년의 일이다. 비로소 단서를 찾은 셈이었다. 장석 수집가였던 김창문 관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물쇠를 보여주길 청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찾았지만 눈앞에 있는 비밀의 문을 열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누군가. 혼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그의 지성이 하늘에 통했다. 삼고초려 끝에 보자기에 곱게 싸 7단 자물쇠를 눈으로 확인한 그는 펴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였다. 스케치도 사진 촬영도 할 수 없었던 터라 오직 눈으로만 꿈에도 그리던 조선의 자물쇠를 봐야 했던 것. 이 대목에서 그는 다시 한 번 장인의 집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자신의 머릿속에 남은 잔상을 대강의 스케치로 복원한 그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씨름을 시작했다. 하지만 단박에 이뤄지는 일이 어디 있으랴. 피를 말리고 기운을 빼는 시행착오가 반복됐다. 하지만 그의 집념은 그의 마치질만큼이나 다부졌기에 마침내 조선의 전통 자물쇠를 전승공예대전에 출품할 수 있었다.

지난 1993년, 그의 출품작이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두석도 독립된 장르로 대접받고 싶다”는 그의 오랜 꿈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었다. 이후 그의 별명은 '자물쇠'가 되었고, 그는 7단 자물쇠를 넘어 8단 자물쇠까지 만들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겉으로 봐선 열쇠 구멍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자물쇠. 광두정(대가리를 넓적하게 만든 못)을 밀어 올려야 비로소 열쇠 구멍이 드러나고 열쇠를 꽂는다고 해도 좌로 돌려야 하는지 우로 돌려야 하는지, 그도 저도 아니면 45도 각도로 올려 돌려야 하는지, 두석장과 주인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열 방도가 없는 신묘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장인에게는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고집과 손재주, 그리고 인내가 그가 말하는 세 가지 덕목이다. 그의 이런 지론은 비단 전통공예를 하는 장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한 가지 일에 능통한 이들의 철학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의 귀띔은 새겨들을 만하다. 그가 마련한 새집에는 여전히 텃밭이 딸려 있다. 고된 작업에 지치면 늘 그래왔듯 그는 작은 텃밭에 나가 고추와 오이를 매만지며 시름을 잊을 것이다. 세월은 가도 부디 그의 손은 녹슬지 않기를...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전택수





## 저 고목 뿌리 하나 들어 정자 한 채 지었는가

길을 가다 경치가 그만이다 싶은 곳이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정자다. 한때는 양반들의 전유물이라 민초들은 감히 눈길조차 주지 못했을 그 공간이 지금은 모두의 쉼터가 되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발길에 차일 정도로 허다한 정자가 하나같이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양각색이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인가 싶은 정도로.

무심하게 보면 정자들은 ‘그 나무에 그 밥’이다. 기와 얹은 한옥이 거기서 거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심함을 관심으로 돌리면 정자는 사람들 얼굴만큼이나 제각각의 표정을 짓고 말을 건다. 정자가 자리 잡은 위치에 따라, 용도에 따라 몸집도 생김새도 각기 다르다. 집을 지은 사람의 취향까지 반영했기에 정자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팔색조와 같다. 우리는 한국 정자의 그런 개성을 영산강 두 날개를 따라 늘어선 전남 나주의 정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길을 나선 날, 하필이면 하늘이 잔뜩 인상을 찌푸렸다. 그렇게 뒤틀린 심사가 부질없었음은 영모정(永慕亭) 마루에 앉아, 온몸으로 비를 맞는 어깨 넓은 영산강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모든 건축물은 두 가지 시선을 가진다. 건물 내부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이고, 바깥에서 풍경의 일부로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하나다. 관찰자의 입장이 되면 두 번째 시선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비가 오면, 사정이 달라진 우리는 비를 피하며 첫 번째 시선에 매달린다. 그건 사용자의 입장이 된다는 얘기다. 사용자? 그래 이곳에서 시를 짓고 사색을 하다, 그것마저 무료해지면 거문고를 애첩인 양 무릎에 얹고 시름을 실었던 이는 누구였을까?

울곡이 인정한 조선의 명문장가 백호 임제(林悒)가 바로 이 영모정의 주인이었다. 당파 싸움에 환멸을 느낀 시인은 관직을 버리고 여생을 변방으로 떠돌았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평안도사로 부임하는 길에 황진의 무덤을 지나며, “靑草 우거진 골에 자는가 누웠는가 / 紅顏은 어디 두고 白髭만 문혔나니 / 藎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라고 읊었던 일은 유명한 일화다. 그의 시가 지금은 평시조의 걸작으로 평가받지만, 당시엔 “한낱 기생의 죽음을 애도해 양반의 체통을 훼손했다” 하여 논란거리가 되었던 모양이다. 이렇듯 주변의





1 전남 나주의 영모정은 영산강을 감상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를 틀고 앉아 있다. 그 경관만 봐도 백호 일제와 같은 시인을 배출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2 수령 400년이 넘는 팽나무들이 마치 문인석처럼 유서 깊은 정자를 호위하고 있다. 3 벽류정의 현판은 고종 때의 대표적인 석인이었던 황사 민규호의 솜씨다. 예서, 행서, 초서 등에 두루 능했던 그의 힘찬 글씨가 정자의 기품을 더해준다.

4 벽류정은 정자 가운데에 방을 앉히고 사방을 마루로 칸 형태를 하고 있다. 사람의 생각새가 제각각이듯 나무의 무늬 역시 자세히 보면 같은 것이 없다. 우주 삼라만상 하나하나가 스스로 세계의 중심임을 생각하게 만든다. 5 벽류정으로 향하는 돌계단. 이 계단을 올라 벽류정 마루에 앉으면 어떤 세상 시름도 잊힐 듯하다. 6 그 옛날, 선비들이 기우의 기예를 수련했다는 기오정. 하지만 기오정에서는 거문고 소리는 들리지 않고 무성한 잡초만이 비를 맞고 있었다.

질책을 감수하고 호방한 시 세계를 선보였던 임제가 글을 깨치고 시를 짓던 곳이 바로 이곳. 비 내리는 영모정 마루였다. 임제가 영모정을 대표하는 인물이긴 하나 이 언덕에 정자를 세운 건 그의 윗대였던 귀래정공 임봉이었고, 정자의 첫 이름도 그의 호를 따서 한동안 귀래정이라 불렀다. 그랬던 것을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재건하면서, 영모(永慕)로 이름을 갈아 현판을 올렸다고. 그런 효심은 지금도 이어져 나주 임씨 종중에서 이 문화재를 소유·관리하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 믿어 기다려보지만 쉽게 그칠 비가 아닌 모양이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에 어울리는 거문고를 탈 수도 없고, 조선의 선비처럼 시심을 불러올 재기도 없어 그저 눈길은 정자 주변만 서성인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정반대 방향으로 대지가 수직의 기운을 뿜은 것이 나무다. 시원하게 펼쳐진 영산강에 빼앗겼던 시선이 나무로 옮겨간다. 그런데 영모정을 에워싼 나무들의 풍모가 남다르다. 그건 단지 20미터 이상의 큰 키와 아름이 넘는 몸피가 주는 팽나무의 시각적 위풍당당함 때문이 아니다. 잘생긴 사내의 넉넉한 수염자리처럼 널찍이 자리 잡은 이끼가 웅변하는 세월의 깊이에서 오는 울림 같은 것이다. 수령이 무려 4세기가 넘었다. 고작 오십 줄 나이를 목전

에 두고, “인생이란 말이야”를 외치며 방정 떨던 사내가 콩 반쪽보다 작아지는 순간이다. 굳이 입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저들이야말로 정자 말할 자격이 있을 만큼의 세월을 산 자들이 아닌가. 굳게 문이 닫혀 내부를 볼 순 없지만 이 정자는 왼쪽 한 칸은 온돌방, 오른쪽 두 칸은 마루방으로 지어졌다. 겨울과 여름에 두루 쓸 요량으로 지은 건물이란 얘기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문을 열어 사람을 받아주었던 이 정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선비들이 시를 짓고 논쟁을 벌이고 학문을 논했을 것은 당연한 일. 여기에 선비들의 가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정자의 풍경이었다. 한류니 K팝이니 하는 것들도 다 이런 전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그런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는 정자가 이곳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영모정보다 살짝 높은 영산강변 언덕에 들어선 기오정(奇傲亭). 이곳이 관심을 끄는 건 반남 박씨 박세해가 17세기, 이곳에 들어와 교류와 후학 지도의 장으로 활용한 공간이라서가 아니다. 바로 이 정자가 선비들이 가무 실력을 갈고닦았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일종의 교습소였던 셈이다. 마루방이 있는 독특한 구조의 이곳에서 선비들은 모난 춤사위를 고르고, 거문고 줄의 감축을 손에 익혔던 것이다. 하긴 그래야 했을 것이다. 서툰 솜씨로는 근동의 날고

긴다는 한량들이 모인 정자에서 감히 앞에 나설 수 있었겠는가. 그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고 기예를 뽐내려면 최소한 이런 수련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을 터. 고려 시대의 문인 이규보는 <사륜정기(四輪亭記)>에서 “여름에 손님과 함께 동산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자기도 하고 혹은 앉아서 술잔을 돌리기도 하고, 바둑도 두고 거문고도 타며 뜻에 맞는 대로 하다가 날이 저물면 파하니, 이것이 한가한 자의 즐거움”이라며 정자에 필요한 도구로 책, 베개, 바둑판 등을 꼽았다. 기오정을 뒤로하고 나오다 언뜻 들린 기침 소리와 바둑알 굴리는 소리는 이규보를 떠올려 들린 환청이었으리라. 지금이야 서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답지만 예전엔 한양과 그 풍경이 닮아 소경(小京)으로 불렸다는 나주. 그래서였을까. 기록에 의하면 그 옛날 정자의 수가 무려 200개가 넘었다. 지금은 30여 곳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지만, 사철 꽃이 질 일 없다는 장춘정, 굽이굽이 흐르는 영산강에 달 뜨면 달빛에도 술이 익는다는 월계정, ‘나주제일정(羅州第一亭)’ ‘영산강제일경(榮山江第一景)’이란 편액이 걸린 석관정 등 하나하나가 보석이어서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그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면, 이 관객은 눈 딱 감고 벽류정(碧流亭)을 택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

록 영산강의 유려함은 없지만, 벽류정만이 가진 아늑함에 안기고 싶어 서다. 벽류정은 가까이 갈 때까지 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눈으로 둘러싸인 적당한 크기의 개활지 봉긋한 언덕에 암전히 앉았지만, 대나무 숲과 키 큰 나무들에 가려 은밀한 만남을 유도한다. 영산강 대신 냇가에 가까운 셋강을 끼고 있는 벽류정. 자연적으로 만든 계단을 오르면 아담한 조선의 여인을 닮은 그 모습이 비로소 드러난다. 마주한 순간 소쇄원의 광풍각이 연상된다. 정자 가운데 작은 방을 두고 사방으로 마루를 낸 모습이 마치 쌍둥이 같다. 세종 때 호조참판이었던 청계 조주(趙主)의 별서 터였는데, 그의 외손인 김은혜에게 양여해 지금까지 광산 김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글씨에 능했던 황사 민규호와 위당 신현의 현판을 비롯해 11개의 현액도 함께 보존되어 있어, 이곳이 문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곳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벽류정의 백미는 정자를 호위하는 대나무와 느티나무 고목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루에 걸터앉아 폴란드 초현실주의 화가 야첵 예르카(Jacek Yerka)의 그림을 떠올리다, 문득 수백 년 세월 심심했던 저 고목이 뿌리 하나를 하늘로 들어 정자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발칙한 상상을 해본다. 조선의 선비들이 모두 떠난 그 자리에서. S 에디터 최태원(프랜시스) 사진 이종근



## 정소영의 식기장, 대표 정소영 그녀의 그릇장

'내 이름 석 자를 걸고'란 말이 있듯,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이름을 내걸고 하는 그 일을 쉬이 하는 사람은 없다. 정소영의 식기장, 정소영 대표가 그랬다.



생활 미감의 한 축으로 사랑받고 있는 도자. 그 한편엔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투박하면서도 진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소개해온 정소영 대표가 있다. 식기를 만드는 장인이라는 뜻의 식기장(食器匠)과 부역살림을 담아 보관하는 짜 맞춘 가구인 식기장(食器機)을 뜻한다는 정소영의 식기장은 실제 젊은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감각과 야문 손끝이 빚어낸 아름다운 식기를 엄선해 소개하고 있다.

“작은 식기가 주는 소박한 즐거움에서 생활의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는 그녀의 바람처럼 그녀의 매장에 세련된 젊은 주부에서부터 예리한 안목을 지닌 예술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작가와 일할 때도 작품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고 일을 합니다. 재능 있는 작가도 많이 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맞춰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식기장을 열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야 식문화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대중적으로 도자의 가치와 인식이 달라졌지만, 문을 연 당시만 해도 도자는 무겁고 불편한 살림으로 그저 장에 귀히 전시되는 존재였으니까. 그 힘든 시간을 견뎌온 그녀에게 매장을 찾는 모든 이가 귀하지만, 그녀가 직접 그들에게 무엇을 권하는 법은 별로 없다. “오시는 모든 분이 각자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만들어갔으면 해요. 각자의 삶, 가치관, 미적 감각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닿는 작품이 있는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보다는 정소영의 기준을 말하고 싶다는 그녀. “절대적인 미학의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제 기준일 수밖에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굽는다'의 맛을 제대로 낸 작품이 참 좋아요. 10년이 넘는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작업을 해온 작가들의 작품엔 자기만의 재료에 대한 이해, 조형 언어가 있거든요. 그 고민에서 나온 인고의 결과가 작품에서 빛을 발하니까요.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그래서일까. 그녀의 매장 속 도자들은 전시대가 아닌 사각 그릇장에 켜켜이 쌓여 있다. 작품 이전에 그릇이라는 도자 본연의 대접을 받는 셈이다. 박물관 속 국보급 '작품'도 결국 당시 쓰던 '생활 소품'이 아니던가.

그런 그녀가 매장 1층에 마련한 '완물취미(玩物趣味)'라는 갤러리는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온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마른손이 흠으로 범벅이 되어 일하는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곳에서만큼은 생활 속 소품이 아닌 오롯이 작품으로서 도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전시를 찾아온 사람들과 작가의 소통이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나오는 도자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그녀. 온 삶을 바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도자의 가치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 반짝이는 두 눈으로 고민하고 소통하는 그녀의 삶이 그 어떤 그릇보다 빛나는 이유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박재형



1 조곤조곤한 말씨로 진지하게 말하던 정소영 대표. 도자 이야기만 하면 반짝이는 어린이이 같은 눈으로 변하던 그녀. 2 서로 다른 매력의 그릇들로 가득한 그녀의 식기장. 3 직접 의뢰해 제작한, 동으로 만든 합은 양갱이나 말린 고구마 같은 군것질거리를 담아 먹기에 그만이다. 은사로 장식한 매화 문양이 포인트.







주린 배 나물로 채우고,  
설운 마음 가락으로 채우고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오랜 세월 외국에서 우리말을 잊고 산 위안부 할머니가 '아리랑' 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도대체 그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그건 노래라는 형식의 힘인 동시에 아리랑이 갖는 저력일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는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 그 원형을 찾는 소리 여행을 떠나보자.





음악(노래)의 힘은 실로 막강하다. 불과 몇 분 만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마술이다. 기억조차 희미했던 옛사랑을 떠올리게도 하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기도 한다. 두꺼운 책이 할 일을 그 짧은 시간에 해낸다. 특히 민요는 그런 음악의 힘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다.

민요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소리다. 입이 있어도 말할 권리가 없었던 이 땅의 민초들. 학자들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듣는 이의 입장에서 민요는 그들의 뉘두리(발언)와 다르지 않다. 자고 일어나면 테자뷔처럼 반복되는 고된 노동과 책으로 쓰면 몇 십 권은 족히 될 듯한 기구한 삶을 구성진 소리에 담아낸 것이 민요다. 내용이 그럴진대 형식이나 화려한 음악적 장식 혹은 장치가 무에 필요했겠는가. 떨어지는 꽃잎은 결코 손등을 베지 못하지만 우리네 마음을 뻗는다. 그래서 단순한 멜로디에 담아낸 절절한 탄식(민요)은 마음을 베는 꽃잎과 동격이다.

한반도는 아리랑의 땅이다. 호남에 가면 호남의 아리랑이 있고, 영남에 가면 또 그곳의 아리랑이 있다. 책을 들춰보니 정선, 밀양, 진도의 아리랑이 3대 전통 아리랑이고, 전국에 50종 3,000여 수의 아리랑이 분포돼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아리랑은 특정 지역의 산물이라 고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 변주가 반복돼 이형이 즐비한 아리랑이기에 한반도와 민족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책으로 치면 이본(異本)이 많은 것이 아리랑인지라 그 해석도 분분하다. 일단 어원부터가 그렇다. 박혁거세와 같은 고대 영웅들의 신탁이 알을 통해 이뤄졌다는 신화나 농경 사회의 곡식 숭배(쌀알)에 그 뿌리가 있다는 등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그 어원이야 어떻든 분명한 건 아리랑만큼 우리 민족의 입에 착 감기는 민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강원도의 아리랑 하면 '정선아리랑'을 떠올린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1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독 강원도 지역에선 아리랑이란 대표음 대신 '아라리'라는 이름을 고집한다는 점이다. 동강을 중심으로 뗏목을 운반하던 뗏꾼들의 입을 빌려 널리 불려온 정선아리랑. 그런데 여기,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소리가 있다. 바로 정선과 이웃한 '평창아라리'다.

정선아리랑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방에 머물러 있는 평창아라리의 발원지는 평창군 미탄면 일대다. 아름다운 여울이란 뜻의 미탄(美灘). 아마도 한반도에서 가장 빼어난 동강을 곁에 둔 까닭이지 싶다. 지명에 잘 쓰지 않는 아름다울 '미' 자를 대범하게 썼을 만큼 수려한 경관은 표현하기 벅차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울울창창한 강원도 특유의 산세에 안온하게 안긴 모습이 그만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타지 사람의 시선이라서 그렇다. 지금이야 서울서 버스로 2시간 30분이면 닿는 곳이지만, 예전에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가난은 어느 한 집의 횡액이 아니라 모두의 짐이었고, 아침저녁으로 오르는 반찬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모진 가난이 평창아라리의 뼈와 살이 되었으니, 사람 사연이나 아라리 사연이나 어찌 이리 기구할꼬.

평창아라리는 산과 강의 노래다. 사설의 상당 부분이 청옥나물이 많다 하여 이름 붙은 청옥산과 동강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아리랑이 들뜬 소리로 변형된 것과 달리 평창아라리는 산 소리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 "산에 왜 갔느냐고요, 먹을 게 산나물밖에 없었드래요, 자릴 옮길 필요도 없어. 한자리에서 바구니 다 채웠으니까요. 산나물이 천지였지."

열여섯 살에 친정에서 입 하나 줄이려고 콩 한 말에 팔리듯 시집왔다는 김옥녀 할머니의 얘기가. 소리를 들려

바위들이 만들어낸 급한 물살에 뗏목이 하도 뒤집어져 뗏꾼들이 진땀 뺐다. 황새(쇠)여울에서 아라리를 시연한 안형모 할아버지는 민요란 구전의 예술임을 강조했다.





소리를 들려달라는 부탁에 비지땀까지 흘리며 아예 남의 감자밭 김을 매고야 마는 김옥녀 할머니. 고된 노동의 한탄은 소리로 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달라는 부탁에 비지땀까지 흘리며 아예 남의 감자밭 김을 매고야 마다. 그런 것인가 보다. 노동의 고됨을 한탄으로 풀어낸 소리를 어찌 시늉으로 끌어 올린단 말인가. 머느리보다 훌쩍 큰 키에 말상을 한 시어머니와 그 시절 글줄을 꿰었지만 태생이 건달이었던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등골이 휘었다는 할머니. 가난이 징글징글했지만 가난을 물려준 부모를 원망한 적은 없다는 그는 “다 팔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팔자 도망 못한 지난 세월을 흐릿한 눈동자에 담아냈다.

바위들이 만들어낸 급한 물살에 뗏목이 하도 뒤집어져 떼꾼들이 진땀캐나 뺏다는 황새(쇠)여울에서 아라리를 시연한 안형모 할아버지는 “언제 소리를 배웠느냐”는 허술한 질문에 “배우긴 뭘. 나면서부터 어른들 소리가 귀에 박힌 거지”라며 민요란 구전의 예술임을 일깨웠다. 그렇다. 민요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물리며 사실이 바뀌고, 뒤틀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사의 원형이란 있을 수 없다. 단지 당시의 상태가 기록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평창아라리 보존회 김홍소 사무처장이 전하는 얘기는 울림이 크다.

“사람들이 평창과 정선 소리를 비교하지만 어느 소리의 사실이 더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인근 지역이다 보니 주고받기가 많았겠지요. 중요한 건 후렴구가 배제된 평창아라리가 원형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앞서 들른 황새여울을 두고 어떤 이는 “황새가 바위에 앉아 물고기를 잡는 곳”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여울이 황소의 뿔을 닮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한다. 이처럼 동강처럼 흐르는 ‘구전 민요’를 그물에 담기란 어려운 일이라.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안형모 할아버지의 “원래는 지금보다 소리가 느렸지. 일하면서 가빠진 숨을 고르려고 하던 소리잖아. 아무래도 반주에 맞추다 보니 소리가 빨라졌다”는 얘기가 “공연장이 아닌 건너편 산속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옛 생각이 나 울컥한다”는 김홍소 사무처장의 전언은 우리가 정작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일러준다.

평창아라리에 자주 등장하는 한치 뒷산(청옥산)은 고랭지 배추 재배로 유명한 ‘600마지기’를 품고 있다. 지금은 손가락 들어갈 틈 없이 나무가 울창하지만 예전에는 8부 능선까지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었다. 대신 곤드레나물이며 딱죽이가 지천이었다. 춘궁기에 험한 산길을 오르면 바구니가 그득했고, 된장 축에도 들기 어려운 시커먼 장을 푼 나물죽은 그네들의 주린 배를 채우는 유일한 양식이었다. 그렇게 한치 뒷산을 오르내리며, 실음에 북받쳐서 때론 민초들 특유의 질편한 해학을 담아 메아리로 남겨두고 내려온 것이 평창아라리였다.

“오늘 해도야 만다같이 남았는데 / 사래 치고 골긴 밭을 언제나 매나 / 도랑가의 퍼림퍼림에 날 가자고 하더니 / 온 산천이 다 아우러져도 정 무소식일세 / 평창 땅이 살기 좋대서 나 살러 왔더니 / 돈 그립고 임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보기도 안쓰럽게 작은 몸집으로 험한 풀만 보며 산 김옥녀 할머니가 헤어질 시간이라고 하자, “다음엔 다른 얘기도 들려줄게”라며 7년 걸려 볼 수 있다는 한치 뒷산 열레지꽃처럼 웃었다. 그레 평창아라리는 요즘 말로 스토리텔링이고, 그 소리를 먹먹한 가슴으로 부르는 그들은 다음 얘기가 준비된 스토리텔러인 셈이다.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이종근

〈국악기행〉에 소개된 음원을 감상해 보세요

매호 소개되는 〈국악기행〉 컬럼의 국악을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설화수 홈페이지의 설화수 매거진 e북을 방문하시면 아리랑의 원형인 평창아라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안형모 할아버지와 김옥녀 할머니가 전하는 구전 민요는 여운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세월이 흘러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꽃이 핀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혔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나무는 사람을 위해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는 한 소년과 나무의 우정을 간결한 그림과 시적인 문장으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우리네 인생 만큼 살아온, 아니 더 오랜 세월을 이 땅을 지켜온 소중한 나무들을 아름다운 세밀화와 함께 살펴보자.

가을이 오는 산길의 길목, 여름내 더위를 이겨가며 그 자리를 지켜온 수목들은 새로운 계절 가을을 준비하는 모습이 한창이다. 그중엔 초록에서 적갈색으로 익어가는 대추가 가득 달린 대추나무를 볼 수 있다. 한자 이름 대조목(大棗木)에서 대조나무, 대추나무로 변한 것으로 추측되는 대추나무는 고려나 조선 시대의 왕실 제사에 빠지지 않았으며, 오늘날 제사상의 앞줄을 차지하는 조율이시(棗栗梨柿) 중 첫 번째에 놓이는 과일이다. 대추의 씨는 순수한 혈통, 즉 임금을 뜻하는데 대추는 씨가 하나요, 밤은 씨가 셋이요, 감은 씨가 다섯이요, 배는 씨가 일곱으로, 대추는 씨가 하나이니 '시조'이고, 밤 이후는 자손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자손 번성의 염원을 담아 올리는 것으로 전해온다. 목재는 조각재, 내장재 등으로 이용하고, 익은 열매를 따서 햇볕에 말리고, 이것을 찌서 다시 한 번 햇볕에 말린 것을 '대조(大棗)'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자양강장, 염증 완화, 이뇨 등의 목적으로 처방·조제한다. 민간에서는 35도 소주 1.8리터에 대추 300그램을 넣어서 차고 어두운 곳에 3개월 이상 둔 뒤 대추를 건져내고 대추술을 만든다. 대추술은 병후 회복기, 냉증, 저혈압, 불면증에 자기 전 1잔 정도 마시면 좋다. 아삭아삭한 생대추는 그냥 먹기에도 그만이다.

번영을 뜻하는 꽃이 피는 상수리나무는 인류가 최초로 먹거리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다가간 나무로, 가장 좋은 품질의 숯을 만드는 재료이며 침목, 장작, 기둥, 선박재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 나무 중의 나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란을 가다가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수라상에 상수리 열매로 만든 묵이 올랐다. 전란이 끝난 후 그때 먹은 것을 잊지 못해 구해 오라고

하여 늘 먹었다 하여 '상수리'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상수리나무의 열매는 상실(橡實)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토리다. <동의보감>엔 도토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쓰며 뉘고, 독이 없으며 설사를 멈추게 하고 장과 위장을 든든하게 한다고 한다. 특히 도토리에 함유된 아콘산이란 성분은 몸에 쌓인 중금속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

이맘때쯤이면 붉게 영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석류나무. 입안에 넣고 씹으면 기분 좋게 터지는 투명한 수정 같은 씨는 새콤하다 못해 시고 뚝은맛이 난다. 고서에 따르면 "서역에 사신으로 간 장건이 안석국(安石國, 페르시아를 가리킴)에서 씨앗을 가져왔으며, 열매가 흑처럼 생겨서 안석류(安石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한자 '흑 류(瘤)'가 '석류나무 류(榴)'로 변하고 '안' 자가 생략되어 석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란>에서는 신이 주는 좋은 것들의 예로, <성경>의 출애굽기에서는 석류 무늬로 사제들의 제의를 장식하게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열매 안에 많은 종자가 들어 있어 다산을 상징해 혼례복인 활옷이나 원삼에 문양으로 새겨 넣었다. 이렇듯 고대 그리스신화와 수많은 문명에서 종교적·상징적 의미를 지닌 과일로 귀한 대접을 받던 석류는 현대인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석류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흡사한 성분이 있어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므로 월경 전이나 냉증이 심할 때 먹으면 좋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체지방을 분해하고 소화 작용을 촉진시켜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다고 한다. 햇볕에 말려 사용하는 석류피에는 타닌 등이 들어 있어 입안이 헐었을 때, 편도선염, 기침 등에 1일 10그램을 달여서 식힌 후 하루에 여러 차례 양치질하면 좋다. 또한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생충을 없애는 효과가 있으며 달여서 마시면 설사를 멈추는 데 효과적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종근 세밀화 그림 송훈 도움 주신 곳 아모레퍼시픽 미술관(031-283-0309) 참고 문헌 <약용식물대사전>(대나카 고우지, 동학사)



## 大棗木

대추나무(대조목)  
열매인 대추를 말린 것은 대조라 하며  
자양강장, 염증 완화, 이뇨 등에 좋다.





## 橡實

상수리나무(상실)  
열매인 상실은 도토리라고 불리며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한다.



## 石榴

석류나무(석류)  
열매인 석류는 노랑고 붉은 색감이  
도는 것이 가장 좋다.



## 빛과 결 그리고 선을 위한 다스림

안색과 피부결 그리고 얼굴선을 한 번에 다스려주는 제품이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설화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여민에센스다. 피부를 촉촉하게 해줌으로써 놀라운 피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의 관점에 부합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일컫곤 한다. 하지만 설화수는 이러한 정형화된 아름다움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미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감각에 균형을 맞추며 집중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것,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이다.

이렇듯 설화수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신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일차원적인 미의 단계다. 소외되어 있던 감각을 모두 일깨움으로써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품의 효능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피부의 근본을 다스려주는 제품을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것이 중요한 실천일 것이다. 설화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여민에센스는 단순히 주름을 케어해주는 제품과는 그 격이 다르다. 주름을 완화하는 일차원적인 단계를 벗어나, 피부의 밀도를 개선해 줌으로써 피부의 빛과 결, 선을 관리해주는 한방 에센스다. 일반적인 노화의 증상인 주름, 처진 모공, 무너진 얼굴선, 거칠어진 피부결 모두 피부 밀도를 잡아주면 개선되는 노화의 신호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밀도는 저하되기 마련인데, 이는 잔주름을 더욱 깊게 만들 뿐만 아니라 표피의 탄력이 저하됨으로써 모공이 커지고 형태의 변형을 가져와 피부가 처지는 것이다. 또한 표피의 밀도가 떨어지면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주지 못하므로 얼굴선이 뭉툭하게 변형되기 시작한다.

여민에센스는 안색이 서서히 좋아지면서 피부 결이 고와지고, 탱탱한 탄력을 느낄 수 있어 빛, 결, 그리고 선을 다스려주는 제품이다. 여민에센스에 함유된 영실은 쥘레의 열매를 뜻하는 것으로, 피부 밀도를 활성화해주는 성분이다. 쥘레는 예로부터 꽃잎을 증류시켜 만든 것을 꽃이슬이라 일컬었으며, 말린 꽃잎으로 세수를 하는 등 피부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음단 성분 중 하나인 옥죽은 둥글레라고도 하는데, 이를 우려낸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 탄력이 좋아진다고 전한다. 설화수의 과학적인 기술력인 집대성된 홍삼 사포닌이 농축 함유된 컴파운드 K는 여민에센스의 주요 성분으로,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는 핵심 성분이기도 하다.

피부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듯한 여민에센스만의 질감도 빼놓을 수 없는데, 부드러우면서도 밀착력 있게 피부를 감싸주어 눅눅함 대신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름이나 모공, 미백 케어보다 한 차원 높은 피부를 위한 호사가 있다면 그것은 여민에센스를 통한 피부 다스림일 것이다. 피부의 밀도를 높임으로써 내 얼굴에 최적화된 안색과 피부 결, 그리고 탄력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다른 이가 따라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나만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S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왼쪽 피부를 활성화하는 영실단 성분으로 피부 밀도를 관리해주는 설화수 여민에센스. 촉촉하게 피부에 밀착되는 질감 덕분에 촉촉하고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담백한 고요의 시간, 가을 찾자리

차 한잔에 담긴 자연과 삶의 소박한 진리를 발견하는 생활의 기쁨.

한국의 차 정신은 고려와 조선의 음다 풍습과 선인들의 글을 통해 살펴볼 때, 생각에 그릇됨이 없다는 것과 분수를 지킨다는 것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왕이 신하의 사형과 귀양을 결정하는 의례에서 왕과 신하가 격식을 갖춰 차를 마신 경우나 새로 임명받은 관리가 다방(궁중의 여러 행사에서 차를 준비해 올리고 베푸는 등의 의례적인 차일을 맡아 진행하는 관청)부터 거쳐 나가도록 한 것 등이 모두 차는 참된 마음을 갖게 하고 치우치지 않는 바른 판단을 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차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므로 예로부터 이를 가리켜 선단(仙丹)이라고 했다. 선단은 선약(仙藥) 또는 단약(丹藥)이라고도 부르는 영약으로, 차를 마시면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신선이 된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이렇듯 차를 선단이라고까지 극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조상들이 차를 즐겨 마신 가장 큰 이유는 차가 건강에 이로웠기 때문이다. 차는 흔히 말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마셔도 몸과 정신 건강에 이로움을 주므로 차 마시기를 권장했으리라. 옛날 사람들이 차 생활을 통해 차의 여러 가지 이로운 덕을 논했던 것은 다분히 체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차의 성분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그것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이런 차의 성분은 차나무가 자라는 토양과 햇빛, 습도 등의 자연 조건 그리고 찻잎 따는 시기와 제다법, 보관 상태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 유기물 함량이 높아 비옥한 토양 등 천혜의 땅, 제주에 뿌리를 둔 오설록은 한국의 차 문화를 계승·발전해나가고 있다. 그중 제주 설록다원에서 자란 부드럽고 여린 찻잎을 골라 무농약 식용 감국과 블렌딩한 국화 그린티는 건강은 물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차다. 블렌딩 차의 장점은 순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인데 평소 다른 음료를 즐겼던 사람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색, 향, 미가 친근하고 부드럽게 다가간다. 꽃과 잎을 취향에 따라 조절해서 우려낼 수 있으니 각자의 기호에 맞춰 자신만의 비율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있다. 더불어 삼다연 제주영굴은 제주의 삼나무통에서 숙성한 후 발효차에 제주 영굴의 싱그러운 맛을 더한 차다. 영굴은 신선이 먹는 귀한 굴이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삼다연과 어우러진 영굴 고유의 달콤한 향기는 또 한잔의 새로운 차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 한 모금 음미하며 울창한 삼나무 숲에서 산림욕을 즐기는 상상을, 또 한 모금에서는 탐스러운 제주영굴의 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오후, 화려한 듯 기품 있는 향과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 차 한잔을 우려보는 건 어떨까.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알았던 옛 선비의 정신을 그려보면서 말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공평아트샵(02-3210-0071) 참고 문헌 <한 권으로 읽는 전통문화>서정임, 티벨



위 꽃과 잎이 어우러진 수색이 농밀한 풍미를 전하는 오설록 국화 그린티. 왼쪽 삼다연과 어우러진 영굴 고유의 달콤한 향기가 일품인 오설록 삼다연 제주영굴. 울푸레나무로 만든 찻상은 박목수 작품으로 공평아트샵, 휴의 질감을 살려 빛어낸 다완 다기 세트는 전통화 작품으로 공평아트샵.





## 고귀한 한방 성분으로 심신을 보양하다

인삼으로 시작된 정통 한방의 지혜가 담긴 제품들로  
잠들어 있던 본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귀한 시간.



### 몸과 마음의 조화로움 균형을 찾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여름내 자외선에 고생했던 피부가 안정되는가 싶더니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에 건조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예민한 피부는 쉽게 지치기 마련.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 제품으로 지친 피부를 다스림과 동시에 테라피스트의 정성 어린 손길이 더해져 최고의 아름다움을 실현해주는 공간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한방 허브의 향기가 기분 좋게 코끝에 와 닿는 설화수 스파에서 신유진 씨를 만났다. 옛된 외모의 그녀는 아직 아이가 어려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 세수하고 나선 얼굴에 뿔 바르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그런 그녀에게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언제든 발라도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되 살려주는 좋은 친구 같은 존재라고 했다.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고 자신에게만 오롯이 바치는 시간을 냈고, 그 시간을 설화수와 함께하고 싶어 설화수 스파를 찾게 되었다.

그녀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설화수 스파 페이스 트리트먼트는 '고영양 트리트먼트', 인삼 뿌리와 진생베리 함유로 피부 자생을 강화한 설화수 자음생크림과 피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각종 유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명의본초앰플이 건조하고 푸석해진 피부에 즉각적인 영양을 공급해준다. 여기에 고영양 트리트먼트에 사용되는 설화수 제품에 응축된 인삼의 따스한 기운과 미네랄이 풍부한 옥의 차가운 기운이 상생 작용을 일으켜 한방 성분의 흡수력을 높여주고,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한층 극대화한다. 얼굴뿐 아니라 목, 어깨, 등까지 정성스러운 손길로 관리를 받고 나니 자신에게 값진 선물을 한 것 같다는 그녀. 한결 화사하고 촉촉해진 얼굴만큼 환한 미소를 보이는 그녀와 피부 단짝 친구 설화수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란다.

### 오감을 깨우는 치유의 공간

엄선된 한방 성분으로 만든 설화수 제품과 정통 한방 요법이 만나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아주는 설화수 스파는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어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바쁜 현대인들의 발길로 북적거린다. 설화수를 상징하는 꽃살 문양이 백색으로 마감된 현대적인 미감의 분위기의 설화수 스파.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엔 인삼, 동백, 소나무 등 우리 땅에서 움튼 최상의 것으로 만드는 설화수의 철학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오고, 쾅가엔 자연의 소리와 우리 전통의 선율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음악이 들린다. 더불어 편안한 휴식 공간, 케어를 받은 후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파우더 룸, 고요하고 사적인 케어 공간 등은 설화수 스파가 피부뿐 아니라 마음의 휴식까지 얻고 가는 공간이 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누구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더불어 극진한 대접이 이뤄지는 설화수 스파는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운 조화를 추구하는 설화수의 정신이 현현한 치유의 공간인 것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문성진 도움 주신 곳 설화수 스파(02-411-0262)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4층에 위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의 02-411-0262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http://www.sulwhasoo.co.kr)



지친 피부에 즉각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는 고영양 트리트먼트를 통해 힘 있는 피부를 되찾은 신유진 씨.







##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유쾌한 일침 뮤지컬 <시카고>

숨막힐 듯 관능적인 춤과 음악, 그 사이로 흐르는 진실의 멜로디.

찌는 듯한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찾아오는 선선한 바람이 참 반갑다. 노랑게, 붉게 물들어가는 고운 잎이 가득한 거리를 걷노라니 콧노래가 절로 나고 감성을 채워줄 무언가가 그림다. 하루 종일 책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가을밤, 완성도 높은 뮤지컬 한 편 어떨까. 사랑이는 가을바람이 부는 어느 날, 문화예술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송지현 씨를 만났다. 흰 칠한 키와 동안의 그녀는 놀랍게도 초등학교 아들 둘을 둔 주부라고. 아이가 없을 때는 공연을 즐겨 봤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을 따로 떼어내기 어렵다고. 오늘날만큼 방해받고 싶지 않아 가족의 식사 준비를 마치고 오는 길이라며 환하게 웃는 그녀에게서 아깁 없이 주는 엄마의 사랑이 전해졌다. 사랑 넘치는 그녀와 함께 볼 공연은 뮤지컬 <시카고>.

1920년대 격동기의 미국, 그중에서도 농염한 재즈 선율과 갱 문화가

발달하던 시카고의 어두운 뒷골목에 관능적 유혹과 살인이라는 테마를 결합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는 2000년 한국에서의 초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이자 희곡 작가였던 모린 달라스 왓킨스가 1926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쿡 카운티의 공판에서 영감을 얻어 쓴 원작(A Brave Little Woman)을 바탕으로 밥 파시와 존 캔더, 프레드 엡이 의기투합해 만든 뮤지컬 <시카고>. 유틸리티 있는 가사와 재즈 특유의 농익음이 묻어나는 매력적인 멜로디, 관능미 넘치는 안무는 사람들의 욕망, 부패, 살인, 폭력, 배신 그리고 당시 미국 형법 제도의 모순이라는 무거운 주제들을 결코 가볍지 않게 그려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 16개 나라 250개 이상의 도시에서 1만 5,000회 이상 공연된 <시카고>는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이야기 전개보다는 표현 방식을 부각시키는 콘셉트 뮤지컬 형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극 중 인물인 벨마가 관객을 향해 농담을 걸거나 지휘자 박칼린이 익살맞게 배우들과 대사를 주고받는 모습은 뮤지컬 <시카고>만의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이뿐인가. 첫 장면부터 감탄을 자아내는 관능적인 배우들의 심플한 의상과 절도 있고 섹시한 춤은 보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특히 검은 중절모를 눌러쓴 남자 배우들이 펼치는 장면은 큰 동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시각화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 거기에 브로드웨이 스태프의 내한으로 오리지널 공연을 살린 무대는 간결한 무대와 조명, 몇 개의 소품만으로도 굉장한 느낌을 줬다.

작품의 메인 테마로 농염한 재즈 선율을 들려주는 'All That Jazz', 감쪽하고 경쾌한 'Me and My Baby', 튜비와 트럼펫 등으로 구성된 밴드의 화려하고도 기운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한 'Hot Honey Rag' 등의 뮤지컬 넘버들은 재즈의 진수를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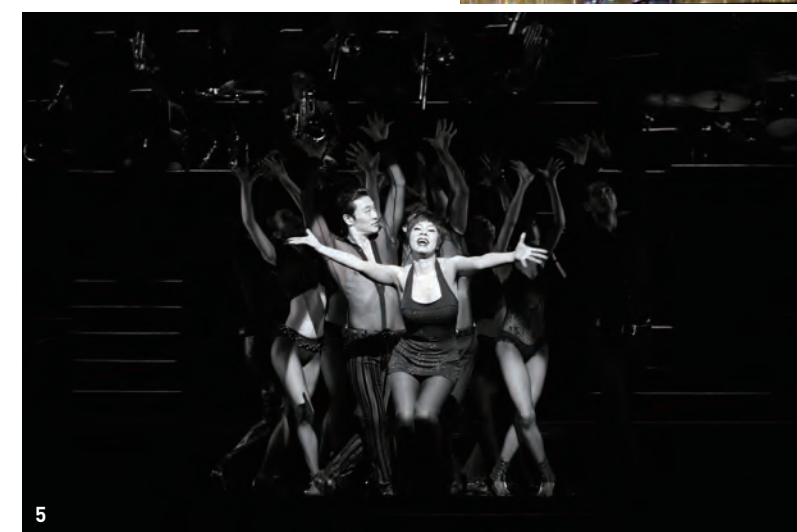
2012년 공연에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작품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여왔던 가수 인순이, 뮤지컬계의 디바 최정원,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 윤공주와 가수 아이비 등 새로운 배우들이 호흡을 맞추며 라이브 뮤지컬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코믹하게 야유하고 조롱하는 뮤지컬 <시카고>. 시종일관 어두운 1920년대 미국의 현실에 국한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제와 그것을 표현하는 음악, 춤 등의 모든 요소는 현재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듯했다. 황금만능주의, 진실보다는 포장 중시하는 외형주의의 편향된 시각에 유쾌하고 통쾌한 일침을 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뮤지컬 <시카고>에게 반할 수밖에 없는 진짜 매력이다. S

에디터 문비승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신시컴퍼니(02-577-1987)



1 관능적인 6인의 주인공과 함께 포토타임을! 2 뮤지컬 넘버를 미리 들을 수 있도록 한 부스 3 두 아들을 두었다고 믿기지 않는 외모의 송지현 씨 4, 5 섹시한 의상과 간결한 무대장치, 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작들로 가득한 뮤지컬 <시카고>.





## ‘2012 설화문화전’ 개최 살아 숨 쉬는 그릇, 옹기를 만나다



한국의 격조 높은 아름다움과 문화를 담고 있는 설화수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전통 문화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09년 시작된 <설화문화전>으로 전통공예와 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 현대 작가의 작품 제작과 전시 지원을 통해 한국적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징적인 우리 문화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다.

‘백미’라는 주제로 시작된 전통 공예작가들과 현대 작가들과의 만남 <2009 설화문화전>, ‘수작-간절 한 만남’이라는 주제의 <2010 설화문화전>,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조화롭게 상생하는 우리 전통문화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주제의 ‘가설의 정원’이 펼쳐진 2011년 <설화문화전>.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펼쳐지는 <2012 설화문화전>은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소경동 학교재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랜 시간 우리 삶 깊은 곳에 존재해왔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옹기의 오랜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기능성을 되찾아주는 옹기만이 지닌 미적인 가치를 보여줄 예정이다. 전통 및 현대 옹기 작품들을 통해 작가들의 뛰어난 기술과 숨겨진 노력, 열정의 시간들을 담아낸 이번 전시는 전통 옹기장인 정운석, 방춘웅, 김청길, 배연식, 허진규 등 5인과 현대 작가 양민하, SWBK(이석우, 송봉규), 권진희, 이기욱, 황형신 등 5인 총 10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가설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바 있는  
(2011 설화문화전).



만물 위로 흩어지는 빛의 에너지가 있다. 이제 그 빛을 볼록렌즈 위로 모아 들어서 하나의 초점 위로 집중시킨다. 하나의 초점 위로 뭉친 빛살의 소용돌이는 마침내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며 주체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화하게 된다. 흩어진 옛 우리 문화를 향한 관심도 마찬가지다. 설화수의 우리 문화를 향한 열정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에너지이자 우리만의 아름답고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

일시 2012년 10월 18일(목)~11월 3일(토) 장소 학교재갤러리(02-720-1524)



## 국립발레단과 황병기의 만남 〈아름다운 조우〉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협업을 시도하고 있는 국립발레단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 바로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이자 가야금 명장인 황병기와의 〈아름다운 조우〉다. 에디터 문비송

자신의 음악은 국악이면서 동시에 현대음악이라던 황병기. 미국에서 낸 첫 음반에 대해 “하이퍼 시대 현대인의 정신을 해독시켜주는 것 같다”는 현지의 평을 받은 황병기의 음악과 서양의 춤 발레가 만난다. 가야금의 진중한 선율 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태평무 이수자 정혜진이 펼치는 〈음악 : 밤의 소리〉, 국립발레단 발레 마스터 박일이 선보이는 〈음악 : 아이보개, 전설, 차랑이제〉, 파리오페라발레단 예술감독이 추천한 차세대 안무가 니콜라 폴의 〈음악 : 비단길〉 등 다양한 색깔의 작품들이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현대와 미래에 닿는 것이어야 전통’이라 말하던 황병기의 신념이 드러나고,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이 지닌 가치가 표현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가야금 창작곡을 선보인 황병기의 가야금을 향한 열정과 자부심, 동서양의 젊고 유능한 아티스트들의 패기 넘치는 안무가 함께할 이번 무대. 가야금 소리와 함께 전통과 현대가 조우하는 감동의 순간을 명장 황병기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만나보자.

일시 9월 27~28일 오후 8시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587-6181 관람료 R석 6만원/S석 4만원/A석 2만원



###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2012년 국내에서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는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인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대표 소설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를 원작으로 한다. 18

세기 프랑스혁명을 배경으로, 런던과 파리를 넘나들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한 남자의 운명적인 사랑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특히 쉽게 소화하기 어려운 높은 음역대를 자랑하는 〈두 도시 이야기〉의 뮤지컬 넘버는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류정환, 윤형렬, 카이, 전동석 등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인정 받는 발군의 뮤지컬 배우들이 선보이는 명작의 감동을 직접 확인해 보자.

일시 8월 28일~10월 7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1577-3363 관람료 VIP석 12만원/R석 10만원/S석 7만원/A석 5만원

### 이 시대의 아름다운 싱어송라이터 콘서트 〈제임스 모리슨 & 정재형〉

셰익스피어의 고향, 영국 월릭셔가 낳은 음유시인이자 브릿어워드에서 최우수 남자 가수상을 수상, 음악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으며 월드스타 대열에 오른 아티스트 제임스 모리슨이 한국에 온다. ‘You Give Me Something’으로 영국 싱글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그는 최근 발매된 정규 앨범 3집 〈The Awakening〉으로 영국에서는 이미 100만 장 이상 팔리는 플래티넘을 기록했다. 그의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번 공연에서는 서정적인 동시에 위트와 경쾌함이 묻어나는 싱어송라이터 정재형이 함께한다. 깊어가는 가을밤 노천극장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피아노 곡과 매력적인 두 아티스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일시 10월 7일 오후 6시 장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문의 02-563-0595 관람료 R석 12만 1,000원/S석 9만 9,000원/A석 7만 7,000원





## 설화문화클래스, 그 두 번째 이야기

근본을 보는 지혜가 만드는 남다른 가치 체험의  
현장 설화문화클래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전통  
매듭을 만나다.



전통문화와 대중과의 소통을 돕고, 장인들을 통해 우리 문화 속에 담긴 근본의 지혜와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설화문화클래스가 지난 7월 26일,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가정당에서 제2회를 맞이했다. 각 분야 장인이 들려주는 생생한 문화 이야기와 더불어 탁월한 평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준모 명사의 깊이 있는 강의,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설화문화클래스.

정준모 명사는 우리 전통문화는 현대에서 생활 방식이 바뀌고 쓰임새가 변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한길만을 지키며 삶의 가치와 근본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통 장인들이라고 설파했다. 설화문화클래스의 두 번째 이야기인 매듭은 우리가 종종 '매듭을 짓다, 매듭을 풀다'라는 말을 하듯이 수없이 얽히고설켜서 인위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것이 마치 세상의 이치와 닮아 있다고. 이렇듯 작은 매듭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쳤다.

이어서 박선경 매듭장 전수자는 4대째 가족을 잇고 전통을 이어왔던 전통매듭 이야기와 전통매듭의 제작 과정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초대 매듭장을 지낸 할아버지 정연수翁을 시작으로 할머니 최은순 여사, 현재 매듭장 보유자인 어머니 정봉섭 여사의 뒤를 이어 전수교육조교로 활동하며 4대로 이어지는 매듭장 가문의 명맥을 잇고 있다고,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옛 선

조들의 생활 속 지혜로 명주실 한 줄로 시작해 엮고, 짜고, 겹치고, 꼬아 새로운 하나가 되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 탄생되는 매듭의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과 함께 부채 장식인 선추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동심결매듭, 도래매듭, 외도래매듭 등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해 선추를 완성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설화문화클래스를 통해 전통매듭의 아름다움은 물론, 실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귀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S





## 마음을 담는 보자기, 혼례보

고운 빛깔 천을 수놓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들.



### 〈Sulwhasoo〉 독자 참여 코너 ‘전통공예 배우기’

매호마다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는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에서 다양한 공예 기법으로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전통공예 배우기’ 칼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독자엽서를 통해서 응모 가능합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한 낮익은 풍경을 뒤로하고 한옥의 처마 선이 어깨를 맞대며 옛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북촌. 현재 속에서 과거를 경험할 수 있는 북촌길을 따라가다 보면 잊혀가는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북촌문화센터를 만날 수 있다. 그곳에서 박진영 씨를 만났다.

차분한 말씨의 그녀는 평소에 관심은 갖고 있었으나 배울 기회가 없던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싱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와 함께 배울 전통공예는 전통 혼례보. 신랑의 사주단자를 혼례보에 써서 신부 집에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혼인이 시작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모양과 형태에 따라 혼수로 보내는 비단을 싸는 예단보에서부터, 사주와 혼인을 원하는 날짜를 적은 문서를 싸는 연길보, 시부모에게 올리는 음식인 폐백을 싸는 폐백보, 이 외에 기러기보, 사주단자보, 노리개보 등이 있다. 또한 백년가약을 맺는 귀한 혼례에 사용되는 보자기이므로 장식과 색에 담긴 의미도 다양한데, 오복을 상징하고 귀신을 쫓는다는 박쥐 모양 장식을 달거나, 한번 인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지키며 짝이 죽으면 혼자 산다는 기러기의 형상을 싸는 기러기보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폐백 음식과 목기러기를 싸는 수보자기의 바탕색을 음양 결합을 의미하는 자색이나 평안과 구복의 뜻이 담긴 흑색을 주로 쓰는 것도 혼례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간소화된 서양식 혼례로 많이 잊혀가고 있지만 하나하나 의미가 깊은 만큼 앞으로라도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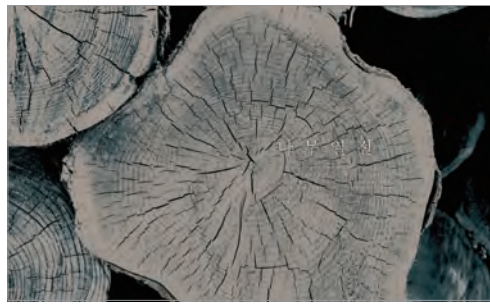
유산인 것이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색감의 비단 천을 가지고 만든 혼례보의 고운 자태에 반했다는 박진영 씨. 마침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결혼에 직접 지은 혼례보를 선보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는 그녀에게서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한 땀 한 땀 수놓던 옛 시대 여인의 단아한 모습이 그려졌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서울시 북촌문화센터(02-3707-8388, <http://bukchon.seoul.go.kr>)







page 24 | **Quality Life**

<Quality Life> is a column about tracing the steps of Korean ancestors to explore the lifestyles and aesthetics of the past beyond cultural heritages. For Korean ancestors who enjoyed their friendship with nature, every root of trees had significant meanings and symbols. This issue introduces Korean trees that provide significant meanings to the nobility that loved them by region and place. Let us discuss the historical meaning of trees depicted as natural monuments, as examined in <Yanghwasorok> for industrial use.



page 38 | **The World's Design Hotel**

<The World's Design Hotel> introduces the world's design hotels that are glowing with unique personalities, from the hotels built by renowned designers to the design hotels of fashion brands. Hotels are no longer just for travelers' lodging; they now offer rest beyond visual pleasure. This issue introduces Les cadoles of la colline du Colombier in Iguerande in central France. Les cadoles is a unique guesthouse that harmonizes natural and modern interiors and offers a superb menu by Star Chef Michel Troisgros to highlight your vacation.



page 44 | **Art Class**

<Art Class> is a column about exhibitions recommended by renowned art critics in Korea for art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This issue introduces <The Vertical Village>, an Asian tour exhibit which brings together the concept of 'Vertical Village' that MVRDV, and The Why Factory, presented after three years of research on the alternative uniform apartment-type residential structure. Considering the three-dimensional community that brings freedom of expression, diversity, flexibility, and locality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all urban dwellers.



page 50 | **The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The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is a column that explores the wardrobes, food, and home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introduces artworks that beautifully harmonize tradition and modernity. The excellence of Korean paper is well known around the world. This issue features contemporary aesthetics created by the modern furniture and accessories made out of Korean paper. Products include paper flowers, paper vessels, paper wardrobe, paper Hanbok, and paper lighting.

page 60 | **Sulwha Cultural Exhibition - Meet the Master**

<Sulwha Cultural Exhibition - Meet the Master> is where you can meet the skills of the masters preserving and developing Korean tradition to realize the beauty and superiority of Korean traditional craft. This issue underscores the story of Duseok Master Moon Yeol Park,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64 of Korea. He was one of the masters who participated in Sulwha Cultural Exhibition, which is Sulwhasoo's beautiful journey that protects the Korean heritage. He still travels across the country with the tools he has been using the past 43 years.



page 66 | **In Search of a Space for Rest**

<In Search of a Space for Rest> introduces tourist attractions that offer comfort and healing to modern people for peaceful mind. The trip in search of a rest in Korean traditional spaces that give consolation and remedy to the modern people: Naju of Jeonnam used to have about 200 pavilions. Many pavilions are well preserved, including Giojeong where traditional noblemen learned to sing and dance. Let us enjoy the trip to Naju and experience the variety, yet profound value of Korean pavilions.



page 72 | **Trip of Korean Music**

<Trip of Korean Music> - the column in search of the origin of Korean music. The story of Korean music written amongst the landscapes of Korea in different seasons. 'Mitan Arari', of Gangwon-do, known as the origin of Arirang, tells us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essence of Korean music. Join us as we journey through the sounds of Arari, winding along the mountains and the Dong River of Gangwon-do.



page 84 | **Sullocdawon(雪綠茶園)**

<Sullocdawon> is a column that spotlights the reemerging tea culture for the best tea-drinking experience. This issue presents the osulloc Samdayeon Jeju Citrus Sudachi with the tangy essence and juice of Citrus Sudachi and O'sulloc Chrysanthemums Green Tea in harmony with chrysanthemums and young tea leaves. Enjoy a warm cup of autumn tea with long-lasting color and elegant taste.





##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 여러분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독자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더욱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설화수 제품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2년 10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 당첨자 발표** 2012년 11/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문의** 02-709-5525



### 설화수 윤조에센스 5명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촉촉함을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주는 한방 에센스입니다. 세안 후 가장 먼저 피부에 바르면 메마르기 쉬운 피부에 윤기를 주어 다음 단계의 흡수 및 효능을 높이는 부스터 기능의 제품입니다.

문의 080-023-5454

### 7/8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 성경희** 경북 포항시 남구 자곡동
- 신현국**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 원영희** 서울 강남구 세곡동
- 이재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 최간란**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 오설록 우전(5명)

- 인혜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 유승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42
- 정금희** 서울 강동구 천중로
- 최숙희** 서울 도봉구 방학3동
- 허윤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등백동

★7/8월호 당첨자 선물은 9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